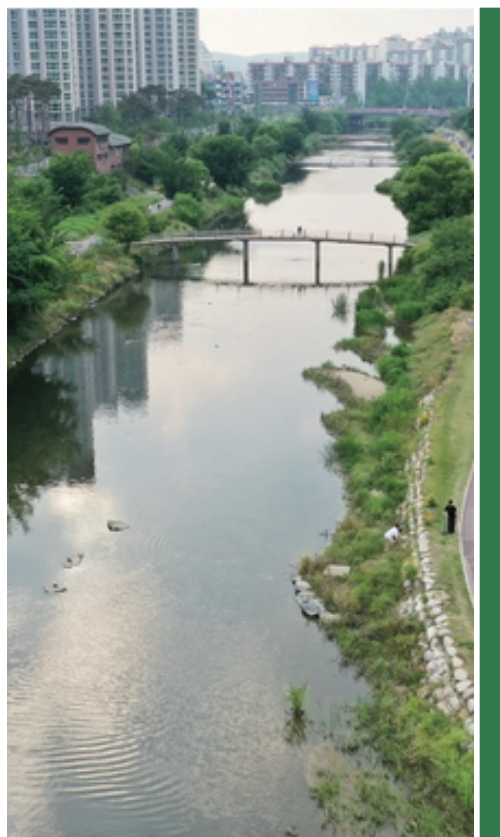


안양천
요즘
어때요?

시시콜콜 대화모임
라운드테이블



안양 문화도시 시범사업



결과보고

안양천 요즈음..... 어때요? 결과보고

내가 만들고 가꾸는 PLAY CITY 안양



안양천
요즈
어때요?

미래의 안양천을 함께 상상하는
시시콜콜 대화 모임
2022. 9. 22~2022. 11. 1



목차

안양천, 요즘 어때요? 기획의도 9

사업내용 15

대화모임 기록 21

프로그램 운영 22

1. 기억나누기

나의 안양천 경험 26

나 이게 좋아요 32

<안양천, 요즘 어때요?>에 기대하는 것 36

2. 안양천 다시보기

안양천을 망치는 법 VS 안양천을 살리는 법 38

타 모듈 탐방후기 45

3. 안양천 아이디어 확장

1. 임의단어 고르기 46

2. 활동제안 카테고리 묶기 52

소감나누기 58

4. 아이디어 정리하기

1. 개별아이디어 정리하기 60

2. 아이디어 확장 64

소감나누기 76

5. 활동제안 구체화

1. 걸림돌의 해결방안 모색 78

소감나누기 84

활동제안 도출결과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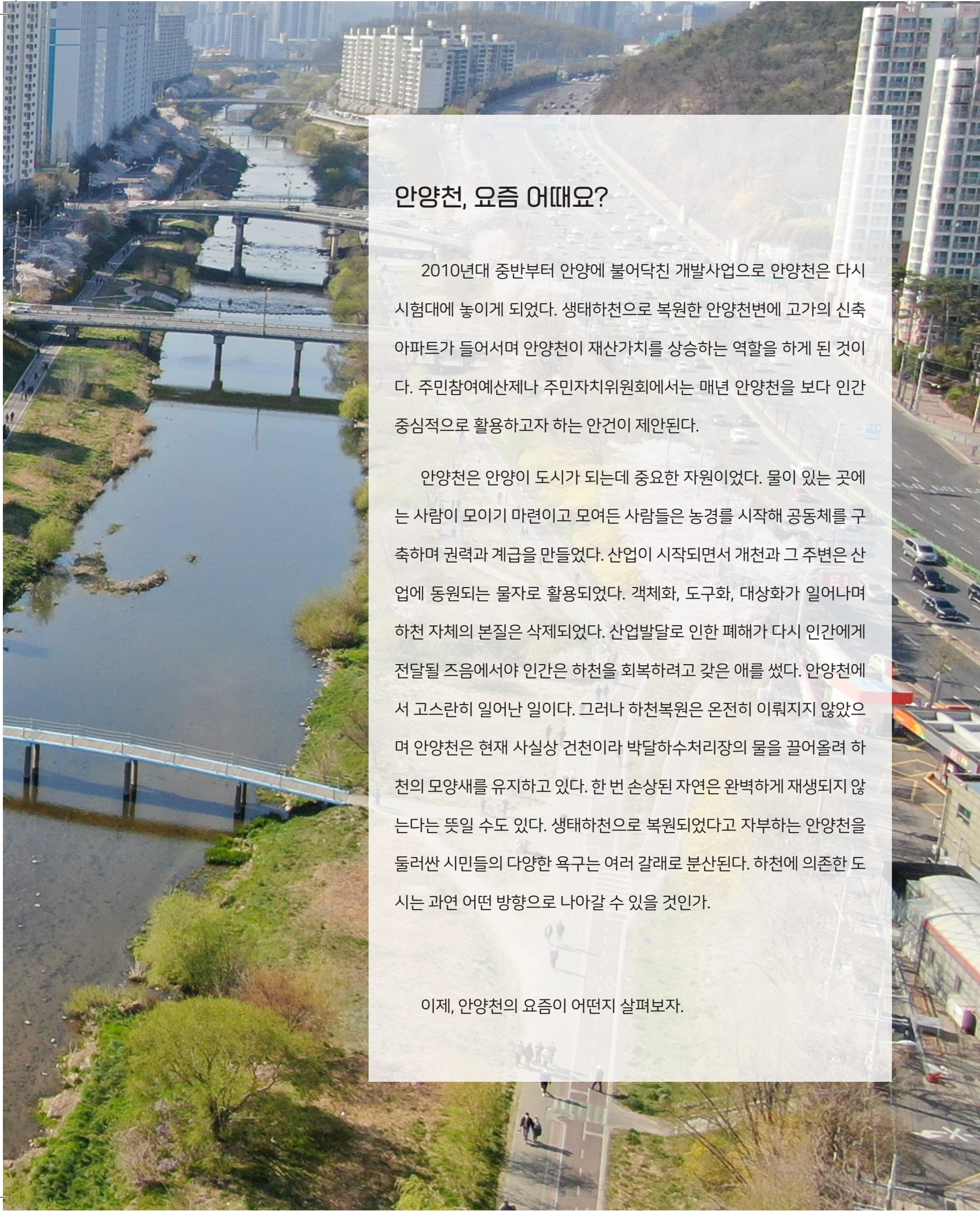
안양천, 요즘 91

운영평가 109



안양천
요즈
어때요?
기획의도

이번 장은 3회에 걸친 특강내용과 수행업체인 문화공동체 히응의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양천, 요즘 어때요?

2010년대 중반부터 안양에 불어닥친 개발사업으로 안양천은 다시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안양천변에 고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며 안양천이 재산가치를 상승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매년 안양천을 보다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이 제안된다.

안양천은 안양이 도시가 되는데 중요한 자원이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고 모여든 사람들은 농경을 시작해 공동체를 구축하며 권력과 계급을 만들었다. 산업이 시작되면서 개천과 그 주변은 산업에 동원되는 물자로 활용되었다. 객체화, 도구화, 대상화가 일어나며 하천 자체의 본질은 삭제되었다. 산업발달로 인한 폐해가 다시 인간에게 전달될 즈음에서야 인간은 하천을 회복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안양천에서 고스란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하천복원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양천은 현재 사실상 건천이라 박달하수처리장의 물을 끌어올려 하천의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 한 번 손상된 자연은 완벽하게 재생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다고 자부하는 안양천을 둘러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여러 갈래로 분산된다. 하천에 의존한 도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안양천의 요즘이 어떤지 살펴보자.

안양시민이 인식하는 안양천 구간은 안양천을 포함한 지천까지 포함한다. 안양천의 상류가 되는 곳은 안양의 남쪽 끝 의왕시 고천동이다. 고천동에서 발원한 안양천은 의왕시와 군포시를 지나 호계동부터 안양시의 구간이 된다. 이 구역의 안양천은 군포시와 안양천을 넘나들며 흐르다가 안양장례식장 앞에서 비로소 완전히 안양땅으로 진입한다. 안양천과 가장 크게 합류하는 학의천은 의왕시 백운호수에서 발원해 평촌동과 관양동과 비산동을 지나다가 안양동과 비산동이 만나는 쌍개울에서 합류한다.

이 안양천은 서쪽으로 흐르며 안양동을 따라 석수동으로 흐르는데 만안교 부근의 삼막천이 삼성천과 합류한 뒤 석수동의 안양천과 합류한다. 박달동 수리산부근에서 시작한 삼봉천은 박달동을 지나 석수동의 안양천으로 합류한다. 넓어진 물줄기는 저지대인 석수동 연현마을로 나가 서울시 금천구과 광명시 소하동의 경계를 따라 흐른다. 안양천은 남에서 북으로 흘러 한강에 이르는 셈이다. 안양역 부근의 수암천은 일부 구간 복개로 병목안부터 내려오고 있지만 안양일번가에서 끊어져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

행정구역상 안양천과 접하지 않는 곳
- 만안: 안양 5동, 6동, 8동, 9동
- 동안: 갈산동, 신촌동, 귀인동, 평안동, 범계동
그 외 모두 접함 (행정동 기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동향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한 복개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추진	안양천 수질개선 및 보전 등 도시하천 기능회복을 위한 하천 정화사업 실수	자연형하천정비 및 고수부지 활용사업 추진 국내 자연형 하천정비 수질정화 기법 시험적용
주요기능	치수기능	수질보전 기능	친수, 자연공생기능

2001년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에서 평가한 안양천 관련사업의 연대별 동향



안양천살리기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불거졌듯이 안양천은 비단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양천의 발원지인 의왕시, 안양까지 다다르는데에 거쳐야 하는 군포시, 한강에 닿기까지 거치게 되는 광명시, 서울의 각 자치구 구로,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까지 협의하지 못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엽적으로 보면 안양내의 각 구간, 또한 안양천이 미치지 못해 안양천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안양천이 타 시도와 연결된 만큼 안양천을 찾거나 이용하는 사람들도 안양시민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례로 안양천의 쌍개울은 자전거라이더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며 모이기 좋은 광장형태로 되어 있어 많은 비 안양권 시민들이 모여들기도 한다.

안양천에는 자전거도로, 발지압장, 인공습지, 농구장, 관찰데크, 쉼터, 게이트볼장, 오솔길, 화장실, 음용수대, 징검다리 등 시민여가를 위한 시설과 수질정화시설, 지하철 용수배구, 하수고도처리수 하천유지용수, 소하천 보전수로와 같은 안양천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물도 배치되어 있다. 안양천은 자연형으로 조성하였으나 관리주체는 환경부와 안양시로 나뉘어 분명히 사람의 손길을 받고 있으며 동식물의 생태복원보다는 인간에게 이로운 하천으로 꾸려왔다.

우리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안양천, 요즘 어때요? 라고 시민들에게 묻고자 했다. **안양천, 요즘 어때요**는 안양천을 주제로 펼쳐나갈 여러 가지 문화사업의 기반작업이라 할 수 있다. 품고 있는 역사성과 시민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접근성은 안양천의 자산이다. 안양천을 즐기는 사람들의 애정을 확인하고 안양천은 지금 안양시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안양천에 근현대사 역사를 알아보는 구술채록과 같은 지역자원조사도 필요하겠으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현재를 사는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우선이었다.

안양천의 훼손과 복원은 모두 여러 사람들의 욕구가 안양천으로 수렴된 결과였다. 2022년 지금의 안양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을 통해 안양천의 과거로부터 안양천의 현재를 진단하고 안양천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해석을 이해하고자 했다.



안양천
요즈
어때요?
사업내용

이번 장은 참가자 모집 결과와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록했습니다



미래의 안양천을 함께 상상하는
시시콜콜 대화 모임

안양천 요즘 어때요?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2. 8. 31. (수) ~ 9. 19. (월)



안양천, 요즘 어때요?는 문화도시
생태하천으로 지속·보전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안양천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문화를 상상해 볼 여러분을 안양천 라운드테이블에 초대합니다.

참가자 모집

- 비전문가도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로 구성
- 모집단계 - 전 연령대 참여가능한 저녁시간 설정
- 모집 결과
- 참가자 특성 :
 1. 관내 활동가 및 공익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시민,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시민, 문화도시 타사업 유경험자
 2. 환경보호, 생태중심적 사고를 가진 참가자 다수
 3. 인구학적으로는 전원 30대 이상, 여성 다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여	0	6	11	3	20
남	3	3	1	4	11
합계	3	9	12	7	31



사업내용

참가지원자들의 안양천에 대한 생각

우리는 참가지원자들에게 안양천을 어떻게 가꾸고 싶은지 질문했다.

안양천을

알차게
건강하게
가고싶게
활력있게
활기차게
활기있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이해하며
문치있게
우아하게
쓸모있게
하천답게
유익하게
아름답게

안양스레(안양스럽게)

가꾸고 싶습니다

안양천
요즈
어때요?

안양천을

힐링공간으로
천변 그린도시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더 예쁘고 활기차게
생명다양성이 회복되는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강으로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자연생태를 지키며 시민이 즐길수 있게
사랑하는 마음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며
자연속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양만의 색깔이 있는 친환경적 안양천으로

매일 소소한 축제가 열려 시민의 삶을 반짝반짝하게
기억하며 세대를 이어 다시 전해지는 우리의 안양천으로
새와 동물들의 안식처이며 주민들은 이웃이 되는 공간으로
물이 흐르는 곳의 돌과 흙을 정리하여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속이 뽕 뚫리는

가꾸고 싶습니다



안양천 요즘 어때요? 대화모임 기록

이번 장은 7회차의 대화모임을 기록해 활동제안으로 도달하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일시 | 2022년 9월 22일 오리엔테이션 외
매주 화요일 19:00~21:00
장소 | 평촌아트홀 아트림
기획, 운영 | 문화공동체 히음
협력운영 |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도시기획실
Project Manager | 문화공동체 히음 이하나
현장감독·안전관리 | 문화공동체 히음 박창훈
퍼실리테이터 | 차윤주, 강미자, 문명순

프로그램 운영 계획

회차	일정	형식	특강 및 안내	워크숍 진행
1회차	9/22 (목)	O.T	문화도시와 프로그램 안내	아이스브레이킹 인사나눔
2회차	9/27 (화)	특강 워크숍	안양천의 역사와 시민활동	나의 안양천 경험 내가 좋아하는 안양천 활동
3회차	10/4 (화)	특강 워크숍	안양천의 과거	안양천을 망치는 방법 안양천을 살리는 방법 월드카페
4회차	10/11 (화)	특강 워크숍	안양천살리기운동 소개	안양천 아이디어 확장 안양천에서의 활동 유목화
5회차	10/18 (화)	특강 워크숍	안양천 관련 정책 및 관리	안양천 활동 제안 뽑아보기 안양천 활동 아이디어 확장
6회차	10/25 (화)	워크숍	플레이시티안양과 활동제안에 관한 제언	안양천 활동의 걸림돌 해결방안 모색 최종 아이디어 정리
7회차	11/1 (화)	발표		활동제안 공유회 수료식

1. 모두 적극 참여하기
2. 경청하기
3. 끼어들기 금지
4. 정해진 시간 꼭 지키기(대화 독점 금지)
- 대화모임 운영규칙

오리엔테이션 진행 개요

- ✓ 안양 문화도시 추진방향 및 구상
- ✓ 문화도시에 대한 소개
- ✓ 플레이시티 안양에 대한 개요 설명
- ✓ 향후 대화모임 운영방식과 성취 목표
- ✓ 스탭 소개

대화모임의 전개

- ✓ 1. 나의 안양천 공유하기
- ✓ 2. 내가 해봤던 안양천에서의 활동
- ✓ 3. 안양천 다시 보기
- ✓ 4. 안양천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활동 찾아보기
- ✓ 5. 안양천 활동의 걸림돌 찾아보기
- ✓ 6. 시민자발적인 활동 떠올리기
- ✓ 7. 직접 실천가능한 활동 제안하기



라운드테이블의 효과적 운영

✓ 운영방안

- 초기 3-4회 특강 진행으로 안양천의 역사와 변화에 대한 기초상식 전달
- 지식습득이후 안양천 다시보기 진행
- 환경운동활동가의 강연으로 안양천의 관리 및 행정적 한계 확인

✓ 테이블 구성과 참가운영

- 적정인원을 3개 모둠으로 사전배치
- 참가차별 특성, 평소 지역 내 활동 상황에 따라 1개 테이블에 활동성향이 쏠리지 않도록 배치
- 기획자와 퍼실리테이터들의 장기 지역활동 경력이 있어 사전에 참가자들의 개별특성을 이미 파악
- 3개 모둠 구성 각 테이블당 1명의 책임 퍼실리테이터 배치
- 참가자의 어려움 있을 경우에 관한 대비 철저
- 퍼실리테이터의 개인전화번호 미공개 원칙
- 매회 현장반응 반영한 운영기획 및 설계, 사후 기록

✓ 운영스텝 준수사항

- 수행팀과 퍼실리테이터 3인, 매회기 종료 후 대화모임 장소에서 30분이상의 간담회로 당일 활동 소회
- 참가자 반응 및 반성 공유
- 대화모임 종료 후 3일 이내 활동내용 기록 정리 공유
- 주말 양일 중 1일, 다음 회차의 준비회의 별도 진행
- 참가자들의 참여도와 역량에 따라 다양한 모더레이터 방식 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설계
- 최종회기 10개 이상의 정책제안 가능하도록 점진적 상승방식 채택
- 대화모임의 분위기와 공감대, 개인역량을 상승시키고 구체화하도록 설계
- 준비회의 종료 후 구체적 프로그램 큐시트 구성, 분단위 진행순서 설계
- 특정참가자의 시간, 발언 독점 관련 메뉴얼 구축

나의 안양천 경험

나의 안양천 경험을 나누며 서로 인사를 나눴다.
참가자들의 안양천경험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했다.

☑추억

- 안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추억이 너무 많다
- 학교 앞 논길이 있었고 개울에서 거머리, 잠자리와 함께 했다
- 안양천을 끼고 있던 철길이 기억난다
- 어머니가 안양천에서 빨래를 했던 추억이 있다
- 안양예술공원 안양천에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했어요
- 안양유원지에서 삼계탕을 먹었다
- 가족과 안양유원지 평지에 캠핑 장비를 들고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다
- 관악산을 거쳐 삼성산으로 내려와 바위 사이 빗골에서 수영을 했는데 그 물이 안양천 상류인지 몰랐다
- 멀리 수리산을 바라보는 것도 좋았다
- 빠라를 주었던 기억이 있다
- 물 많은 곳에 소풍갔던 것이 좋았다
- 캠핑의 기억이 좋다
- 나의 어릴적 우리동네이다
- 아버지에게서 배운 고기잡이나 자전거등을 나의 아들과 딸과 안양천에서 함께 했다
-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삼성천에서 수시로 물놀이했던 일이 가장 좋은 기억이다

☑오염

- 악취가 기억난다
- 악취로 불쾌했다
- 처음 안양천을 만났을 때는 더러웠지만 지금은 깨끗해져서 좋다
- 1980년대와 90년대의 안양천오염으로 인한 냄새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 2022년 기록적인 홍수로 쓰레기로 가득 찬 안양천을 보게 되었다
- ‘고압’ 안내 표시 있는 곳에 벤치가 놓여 있는 것이 의아하다

☑환경정화

- 학창시절 봉사활동으로 학의천에서 쓰레기를 주웠다
- 수질 정화 활동을 했다
- 하천을 따라 쓰레기를 주으면 하면 특히 다리 밑에 담배꽂초가 많았다
- 안양천 쓰레기 줍기나 수질 정화 활동 후 먹었던 맛있는 생선정식이 기억난다
- 안양천을 거닐면서 플로깅을 하는데 생각보다 쓰레기를 많이 줍기도 한다
- 단체활동으로 쓰레기 줍기를 했다
- 쓰레기를 주웠어요

☑자전거

- 아이들과 자전거 하이킹을 했다
- 안양천에서 출발해서 행주산성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간다
-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좋다
- 나는 자전거를 못타지만 속도를 내며 내 옆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부럽다
- 자전거라이딩 길로서 나의 취미생활의 터전이 된다
-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며 봄에 코스모스를 보며 태어날 아이가 딸이기를 소망했다
-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잠실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라이딩하는 것이 좋다

☑건강

- 체력이 국력이라 생각하며 안양천을 매일 씩씩하게 걷는다
- 도전을 해 볼 수 있어요. 코스트코까지 걸으며 거리를 점차 늘리면서 걸어요
- 걷다 보니 건강해졌다. 온 가족이 함께 걸었더니 모두 건강이 좋아졌다
-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같은 곳이다
- 운동하며 걸으며 맞는 바람이 너무 기분이 좋다

나의 안양천 경험

☑️생태

- 외래종 식물인 가시박은 가을에는 키가 자라서 뽑기 어렵기 때문에 봄에 제거했다
- 까치와 참새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
- 학의천과 안양예술공원 주변의 수질 상태가 아직도 아쉽다
- 천변에 떨어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은행은 별로다
- 안양천 주변에 뽕나무가 많은데 오디가 익어도 중금속 오염 우려로 못 따 먹는 것이 안타깝다
- 생태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안양천' 하면 새와 식물이 떠오른다
- 통통한 잉어무리들이 있는 안양천이 재밌다
- 안양 환경대학 수강 중 체험활동으로 뱀장어와 풀무치를 잡아보았다
- 아이가 학교에서 생태를 배워왔다
- 생태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다
- 수서 곤충을 만났다
- 풀, 꽃, 잡목, 물오리, 새, 물고기, 길고양이 등 자연을 보는 것 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 사계절 변하는 작고 예쁜 풀꽃이 좋다
- 백로와 새해인사를 한다
- 생물다양성 탐사(저서 무척추동물)
- 안양천을 가꾼다는 개나리를 심는다
- 안양천의 금계국은 정말 예쁘다
- 왜가리, 오리등 새들을 낚 놓고 바라본다
- 벚꽃, 조팝나무와 각종 들꽃들과 억새로 바뀌는 계절마다 일품이다
- 사람 그림자만 보면 보여드는 물고기들이 너무 좋다
- 안양천을 걷다가 실뱀을 만났다
-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
- 흐르는 물소리가 정말 좋다
- 물도 좋지만 안양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산도 좋은 곳이다
- 다양한 동물, 오리, 새, 붕어등 살아있는 자연 생물이 있어 좋다

☑️행사

- 쌍개울 환경축제에서 에너지 관련 부스를 운영했다
- 충훈2교 주변에서 열리는 벚꽃축제가 좋다
- 4월의 벚꽃놀이축제가 참 좋다
-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
- 학의천 행사 시 소음으로 인한 주민 항의가 있었다
- 저녁시간에 쌍개울을 지나는데 에어로빅을 해서 따라했다
- 코로나 이전에는 쌍개울에서 시민행사가 많았다
- 쌍개울에서 에어로빅을 배웠다
- 어린이집 가족 행사로, 정해진 학의천 구간을 걷고 도착하면 축하하고, 선물도 받은 행사가 재미있었다
-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일년에 몇 달은 안양천에서 생태수업을 했다
- 쌍개울에서의 공연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

☑️통행

- 하천을 건너 징검다리를 건너서 관양동 재래시장을 다녔다
-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도시락 싸서 광명의 코스트코까지 웨건에 태우고 다녔다
- 청계산에 갈 때 학의천길을 따라 걸어 갈 수 있어서 안양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
-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 때도 안양천을 따라 쪽 걸어서 간다

☑️기록

- 가족들과 야간 산책하면서 안양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았다
- 자연예술을 휴대폰에 담는다
- 아름다운 안양천을 보면 저절로 사진을 찍게 된다
- 지금 유튜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안양천이야기가 많다

나의 안양천 경험

☑ 걷기

- 걸어서 기아대교에서 고천4교까지 갔던 기억
- 안양천길의 저만의 무대로 즐겨요
- 학의천, 안양천 길이 있는 것이 좋다
- 저녁 식사 후 자주 걷는 안양천은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이다
- 산책길을 따라 도보로 걷는 것이 좋다
- 야간 산책은 또다른 느낌이다
- 안양천을 걷다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길이다

☑ 가족산책

- 학의천 벚꽃길을 아내와 걸을 때 좋았다
- 남편과 삼성천을 바라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여름을 즐겼다
- 둘레길 산책의 대화 특히 저녁 운동을 하면서 짝궁과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 눈내리는 겨울에 아내와 안양천을 거닐며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
- 안양천 벚꽃길을 아들과 함께 걸었다
- 학의천을 아이들과 걸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주변의 문화적 자극도 좋다
- 식구들과 식사 후 했던 저녁 산책이 좋았다
- 봄마다 벚꽃이 핀 안양천 산책로를 가족, 친구와 함께 걷고 쉬었다
- 가족, 지인과 산책나들이로 좋아요
- 가족들과 이런저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 휴일이면 가족이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친구 지인과 산책, 대화

- 안양천, 학의천을 따라 걸어 가 평촌 맥도날드에서 책을 읽으며 아이스크피를 마셨다
- 학의천을 따라 친구와 백운호수까지 걸어가서 맛집을 찾아 헤맸다
- 2008년 친구가 학의천을 걸어보자고해서 오랫동안 만났다
-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를 안양천으로 해서 같이 걷기도 한다
- 친구들과 사이좋게 산책을 했어요
- 안양천에서 사람도 만나고 걷기도 하면 마냥 행복하다
- 친언니보다 가깝게 지내는 언니와 산책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다짐·휴식·치유

- 생명력이 강한 수양버들을 보면서 살아남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 학의천 자전거로 출퇴근한 1주일, 그리고 이후에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
- 스트레스 있을 때마다 안양천에서 물멍, 고기멍, 새명하는 것이 좋다
- 벚꽃길의 추억이 좋다
- 93년 평촌 2차 신도시 입주하고 걸었던 기억이 있다
-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닌 곳이 안양천, 학의천이다
- 햇빛 좋은 날 반짝이는 물을 보며 물멍하는 것이 좋다
- 화가 날 때 안양천에서 크게 고함도 치며 분노를 다스리기도 했고 용서하기도 했다
- 안양천이 좋아 안양이 좋다
- 안양천은 '나'이기도 하다
- 나의 도심 속 쉼터다



나! 이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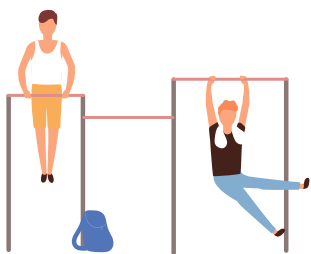
안양천에서 활동 중 가장 좋았던 이야기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좋았던 기억을 회고하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랐다.

시민이 생태 선생님이 된다

- 숲 이야기 선생님처럼 안양천에서 보는 식물이나 잡목 속 동물 그리고 새나 물고기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았다
- 들꽃 이름 찾기 등을 하며 안양천의 다양한 나무와 들꽃을 알아가는 것이 좋았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연 '생태다양성 탐험'에 참여했는데 식물과 새, 어류를 탐험하면서 소통도 해서 좋았다
- 숲 해설이 있는 플로깅이 좋았다

건강과 운동

-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우리집에서 출발해 한강까지 가족과 함께 라이딩하며 건강도 지키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뛰고 싶은 사람은 뛰고, 자전거 타고 싶은 사람은 자전거를 타면서 모두를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 그대로가 놀이가 되는 곳

- 곳곳에 놓인 돌다리를 건너면 어린 시절이 떠올라 좋다
- 안양천의 한쪽으로 흙길을 걷는 것이 좋았다
- 흙, 물, 풀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여 놀이가 되는 것이 좋았다
-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다



산책과 걷기로 건강해졌어요

- 안양천을 통해 우리 가족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 “안양천 고마워요”
- 안양천 전체 구역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함께 걷고 싶다
-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 요즘 좀 소원해졌지만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지나 탄천을 지나 과천으로, 한강을 거쳐 을숙도를 따라 종주했다
- 봄에 코스모스를 보면서 산책을 공유하고 싶다
- 사계절 아름다운 안양천 산책길이 좋다

벚꽃

- 벚꽃시즌에 특히, 해가 진 후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거닐며 벚꽃 구경하는 것이 좋다
- ‘충훈부 벚꽃축제’는 아름다운 꽃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 좋다



문화와 플로깅

- 지금은 학의천변에 살고 있는데 학의천을 산책하다가 공연을 봤다
- 휴일 아침 폭우가 온 뒤 하천 쓰레기를 주으러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챙겨 들고 플로깅을 했다

추억과 사랑의 징검다리

- 함께 살 수 있는 추억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좋다
- 다리밑에 돛자리를 펴고 담소를 나눴다



나! 이게 좋아요!

생태친구 만나기

- 안양천 위쪽에 개나리 심으면 좋다
- 흰뺨 청둥오리, 왜가리 쇠백로, 원앙댕기머리, 해오리기, 알락할미새, 가마우지 등 다양한 새를 만날 수 있다
- 안양천의 여러 생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배운다
- 안양천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어서 좋다
- 뱀을 보고 놀랐지만 모두 같이 사는 건강한 안양천이 계속 지속되길 바란다

벚꽃

- 벚꽃비를 맞으며 걷고 싶다
- 벚꽃이 활짝 핀 봄날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걷는다

아들아 자전거 타자!

에코안양

- 안양천을 같이 가꾸자
- 쓰레기 같이 줍기 활동이 지속되면 좋겠다
- 많은 행사를 통해 시민과 친숙한 안양천이 되길 바란다

자연과 함께

- 안양천에서 노을 바라보면 정말 멋지다
- 안양천 자연인 꽃, 나무, 새, 생물에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쉼과 힐링

- 편하게 걷고 쉬고 싶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좋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아이들과 새들이 좋다
- 물의 흐름과 머무름의 조화를 안양천에서 보여주듯이, 사람의 움직임과 머무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 안양천은 다양한 힐링스토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함께 걸어요

- 안양천 동식물 보며 함께 걷는 게 좋다
- 구간을 정해서 중간지점에서 간식 먹고, 도착점에서 테이프 끊고 축하받고 선물을 받았다
- “건강, 걸어야 산다. 걸어라!!”



안양천, 요즘 어때요?에 기대하는 것

- 안양시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안양천 만들기가 되길 바랍니다
- 안양천과 안양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생태하천으로서의 안양천과 함께 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안양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안양천을 만들어요
- “아! 안양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문화 생태 여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 안양천의 관리와 활동사업 계획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안양천의 요즘 모습을 제대로 알아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배가 산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며, 실현 가능한 멋진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 안양천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을 알고 싶었어요

- 살기 좋은 안양천을 기대합니다
- 안양천이 모든 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가 구축되고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안양천이 되길 바랍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안양천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안양천 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 벤치만 있고 탁자가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기대되고, 함께 안양천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자연친화적인 안양천이 되길 바랍니다
- 가고 싶은 안양천 함께 만들어요
-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는 안양천이 되길 기대합니다
- 라운드 테이블에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요



참가자들의 자발적 안양천 개입활동

- 걷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등 부담이 적은 신체활동
- 동행으로는 친구, 가족
- 안양천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여했거나 주관한 기억, 쓰레기를 줍는 등의 환경정화활동 경험도 다수분포
- 참가자들의 기억에 가족이 다수 등장
- 가족단위 안양시민의 삶의 터전,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 안양천의 자연환경, 생태자원, 물과 하늘이 어우러지는 풍경에 대해 서술
- 도시와 어우러지는 생태환경이 유지되길 바라는 소망 발견
- 시설설치, 개발공사에 대한 의견 적음



안양천 활동제안을 위해 역발상기법을 사용했다. 안양천을 망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고 반대로 안양천을 살리는 방법을 도출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위쪽에 안양천을 망치는 방법을 제시하고 하단에 안양천을 살리는 방법을 기록한다.

똥물 회귀(폐수, 오수)

- ❌ 오수, 하수를 무분별하게 학의천으로 합류하는 과정을 시 관찰부서에서 잘 관리하지 않는다
- ❌ 안양천 주변에 공장을 늘려 폐수가 많아진다

안양천 내 생태 간섭

- ❌ 안양천에 서식하는 물고기에게 자꾸 새우깡을 준다
- ❌ 가물치 같은 특정 물고기의 위치를 알려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잡게 한다

안양천을 망치는 방법

- 자원봉사단 '안양천 보안관'을 자치적으로 조직해서 폐수나 오수 방류를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수질관리를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 지자체의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 폐수나 오수를 처리할 때 역삼투압 필터등을 사용하는 등 정화 필터를 강화한다

- 생태 간섭 행위 금지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 생태 간섭의 위험 등을 안내방송하여 시민들에게 인지하게 한다
- '안양천 시민지킴이'의 역할을 부여받은 감시단 활동을 진행한다
- 자연생태와 관련된 시민 생태교육을 실시한다
- 생태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일상에서의 시민들의 태도변화를 모색한다

시설물 확장

- ❌ 도로와 뚝을 콘크리트로 포장한다.
- ❌ 공연장이나 공장을 많이 짓고 무리한 개발을 한다.
- ❌ 시설물을 많이 짓는다.
- ❌ 자전거 경기장을 만든다
- ❌ 유희공간을 자동차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 ❌ 안양천변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무분별하게 공사하고 정비한다.

흥청 망청(마음껏 놀고 즐기기)

- ❌ 안양천에서 야유회를 자주하며 마음껏 먹고 마시고 버리고 한다.
- ❌ 안전을 무시하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제멋대로 달리고 제멋대로 타고 제멋대로 치고 제멋대로 찬다.
- ❌ 즐겁게 고성방가한다.

안양천을 살리는 법

- 막힌 공간을 만들어내는 체육시설을 최소화한다
-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안양천변의 주차공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고민과 대책을 만든다
- 안양천 주변 아파트와 단독주택 지역을 위해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천변주차 줄여나간다
- 안양천변에 하천 펜스 룰을 정한다

- 자연친화적인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확장한다
-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인다
- 안양천에서 '금주' 규칙을 정한다

쓰레기 투척

- ❌ 페트병 등 쓰레기를 안양천에 마구 버린다
- ❌ 테이크아웃컵, 사탕비닐, 빨대 등 학의천 강변의 쓰레기들이 하천의 생명을 위협하게 한다
- ❌ 쓰레기와 담배꽂초를 강물에 버린다
- ❌ 담배꽂초를 침터와 벤치 근처에 버린다
- ❌ 길을 걷다가 아무 생각없이 쓰레기를 버린다
- ❌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다

별별 쓰레기 투기

- ❌ 음식물쓰레기를 마구마구 몰래 버린다.
- ❌ 별거 아닌 쓰레기 버리기
- ❌ 온갖 쓰레기를 버린다
- ❌ 플라스틱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

안양천을 망치는 방법

- 시민들의 자율적인 플로깅을 실시한다
- 지자체에서 정기적인 플로깅 대회를 진행한다
- 쓰레기 투척 금지 안내판을 설치한다
- 쓰레기 투척금지 안내방송으로 인식전환을 꾀한다
- 쓰레기 무단투기시 처벌 강화하고 단속 철저
- 안양천에서 '금연' 규칙을 정한다

-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운동을 한다
- 플로깅 하기
- 시민운동차원의 감시활동을 한다
- 비점오염원을 파악한다

인위적 시설물 설치하기

- ❌ "편리함"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 (운동기구, 포장도로, 자전거도로)
- ❌ 무조건 개발하기(인위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
- ❌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넓힌다
- ❌ 주변을 난개발 한다. 아파트 상업시설, 복합건물 등을 마구 짓는다
- ❌ 화려한 조명을 설치한다

몰래 버리는 폐수

- ❌ 폐수를 버린다 (얼마 전 신축아파트에 나무를 소독했던 농약을 함부로 버린 것처럼)
- ❌ 생활폐수 공장, 축산 폐수를 몰래 많이 버린다

안양천을 살리는 법

- 시설물 설치 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 민원의 기준을 마련해 악성민원과 시민제안을 구분하고 발전적 시민의견을 받아들인다

-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한다
- 홍보와 교육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하천식생 괴롭히기

- ✗ 안양천 곤충이 '싫어!' 풀 없애기 약 뿌리기를 한다
- ✗ 꽃밭 조성, 하천에 맞지 않는 식물을 심는다
- ✗ 예쁜 나무나 꽃을 나만 보려고 꺾는다



무관심

- ✗ 무관심하기 훼손된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관심 갖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으며 그대로 둔다

안양천을 망치는 방법

-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생태교육을 한다
- 안양천은 한강이 아니다! 안양천의 특색을 살리자

- 하천에 대해 관심 갖기



무분별한 개발

- ✗ 자전거, 도보 도로 최대한 확장
- ✗ 무분별한 개발(아파트)
- ✗ 식당, 카페 설립 허가
- ✗ 자동차 통행 허가
- ✗ 벤치, 설치물 등 설치하기

쓰레기 무단 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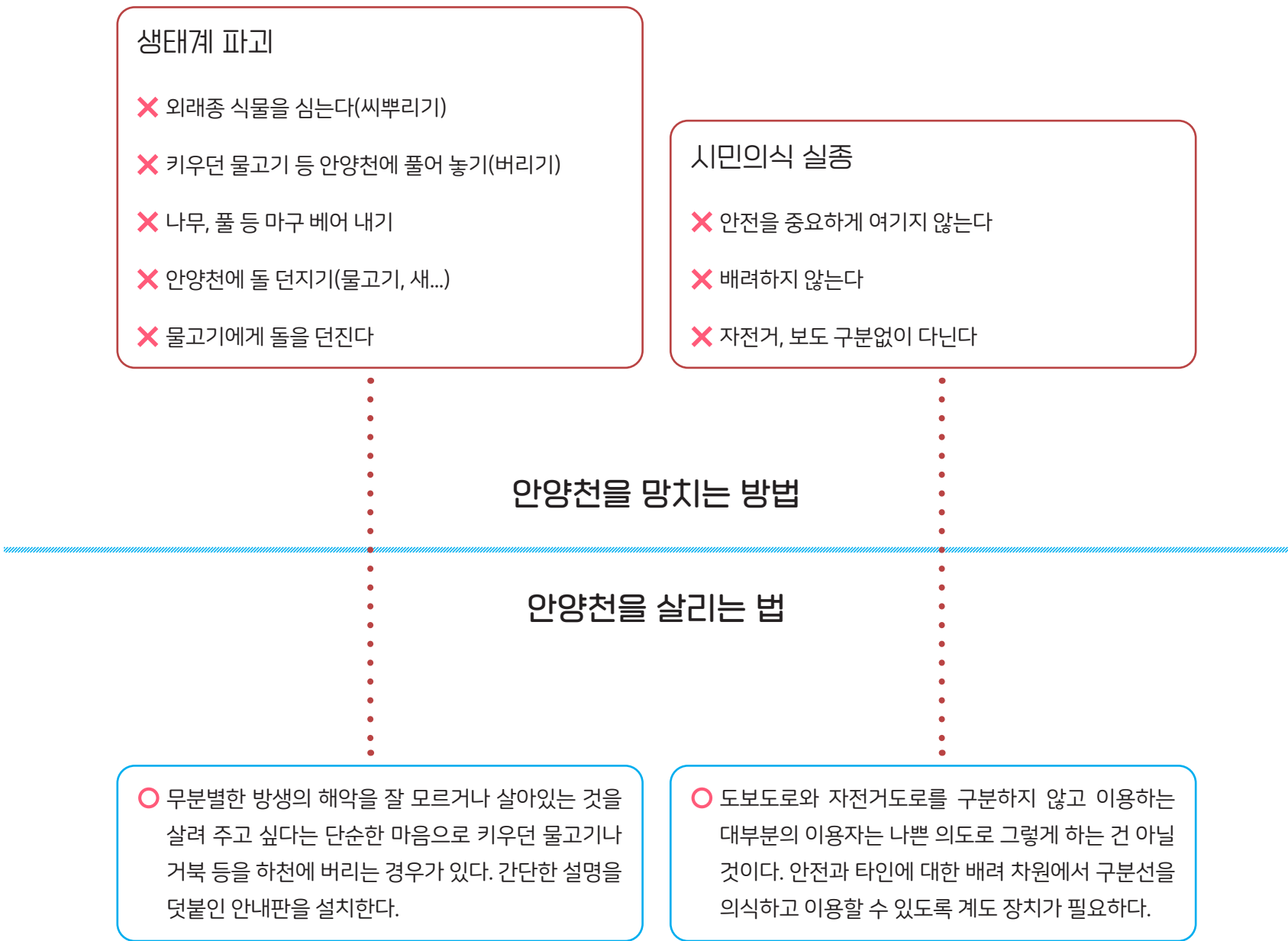
- ✗ 일회용 음료 컵 버리기
- ✗ 담배도 안양천에서 피우기
- ✗ 음료수 먹다가 통째로 버리기
- ✗ 테이크아웃 컵, 담배꽂초, 쓰레기 마구 버리기
- ✗ "쓰레기" 던지기, 놓기.
- ✗ 쓰레기 가져가서 버리고 오기.
- ✗ 이왕이면 생활쓰레기도 몰래 버리기
- ✗ 애완동물 데려가 시원하게 볼 일 보게 하자.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데 뭘.
- ✗ 쓰레기, 오폐수 버리기

안양천을 살리는 법

-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는다
- 시설물을 설치할 때, 꼭 필요한지 숙고 과정을 거치고, 편의와 보존의 의견을 가진 양측이 접점을 찾고, 시민들의 안양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

-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다른 조 토론 내용 탐방 후기

- 다른 조에서 나온 내용 중 우리 조와 비슷한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내용도 많아서 사고의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
- 내가 모르는 분야의 의견과 정보가 흥미롭다. 특히 꽃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난다.
- 다른 조에서 안내자를 맡은 분의 설명을 들으니 도움이 되었고 진지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 각 조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다.
-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했다.
- 1조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 같아 배웠다.
- 3조는 잘 꾸며져 있어서 보기 좋았는데 우리는 너무 딱딱하게 만든 것 같다.
- 다들 너무 열정적이다.
- 벌써 구체적인 안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 나온 것 같다.
- 새로운 경험이다.
- 지금까지는 주로 안양천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안양천을 망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새로웠다.
- 안양천을 망치는 방법은 쉽게 생각이 떠올랐다.
- 보다 생생하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 안양시민의 관심과 열정이 멋지다.
- 길지 않은 시간에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잘 발표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는 시민의 모습이 목소리가 나면서 멋졌다.
- 안양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 모두 진지하게 안양천을 살리는 방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니 7회차에 걸친 이번 프로젝트가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후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 안양천 주변 타 시와 협업하는 활동으로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하다.

각 모듈별로 활동한 내용을 월드카페 형식으로 돌아가며 확인했다. 다른 모듈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비슷한 의견과 다른 의견을 찾아봤다.

월드카페에서 비슷한 의견을 찾게 되면 참가자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자기 의견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며 안도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중 보다 획기적인, 자신이 구체화하지 못한 제안을 보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 막히고 답답한 공간이 아닌 탁 트인 생태공간
- 인생에서 가장 밝았던 일들 추억들 되새겨보기
- 봄날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의 안양천
- 땅, 불, 바람, 물, 마음 - 캡틴플래닛의 5원소에서 마음 대신 햇빛을 넣어 의미있는 안양천의 요소로 확대하기

햇빛

- 어둠은 곤충과 새와 같은 동물에게 실수 있는 평화의 시간
- 햇빛이 없는 밤이면 별이 보이는 안양천을 만들어보자

어둠

- 쓰레기 버리는 것 차단
- 무분별한 개발 차단
- 차단할 것은 차단하여 스마일 웃는 안양, 스마트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
- 안양천으로 내려서면 차단되었던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 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자

차단

- 하천에는 오가는 오리가족이, 둔치에는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가 예쁘다
- 예쁜 추억을 남기는 장소(포토스팟이 있는)가 되는 안양천을 만들자

예쁘다

- 시원한 바람이 좋은 안양천으로 가자
- 안양천의 바람은 봄에는 야생화, 가을에는 풍성한 갈대와 수크령과 함께 하자

바람

- 안양천과 학의천에서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자

단열

안양개비 1모듬이 선택한 단어

커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안양천 아이디어 확장

튼

연상단어찾기

호기심

- 안양천에는 무엇이 살까? 호기심으로 알아보는 안양천
-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즐길 수 있는 호기심 놀이터

비밀

- 안양천에는 그녀와 둘만의 비밀 창고가 있다.. 그곳은 안양천... 안양천에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만들어보자
- 안양천에 나만의 비밀을 떠 내려 보내자

실루엣

- 자연이 주는 그림자가 제일 좋다. 인공광원이 주는 그림자는 불편하다
- 자연친화적인 실루엣 물총 싸움

음흉

- 풀숲 속 음흉해 보이는 곳에 있는 철새들의 등지를 보호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자
- 화나고 속상한, 음흉하고 불편한 마음을 확 풀어지게 만들고 쿨하게 편해지는 마음을 갖게하는 안양천

사랑

- 청춘 남녀만의 산책길을 제공하고 사랑의 열쇠를 걸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안양천 걷기 행사등의 안양시가 주체하는 소개팅 행사

따뜻함

- 안양천을 오고가는 이야기 속에 마음도 따뜻할 수 있게
- 등산할 때처럼 서로 인사해주는 따뜻함을 느끼는 안양천
- 이웃간의 정을 느끼게 하는 안양천
- 대표 인사 문구를 공유하기

임의단어 고르기

주제와 무관하게 단어카드를 사용해 임의단어를 고르고 선택한 단어와 주제를 연결시켜 아이디어를 확장한다. 편견을 최소화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 어린이 모래놀이터를 만든다

놀이터

○ 안양천 쌍개울에서 만나서 놀기 좋은 곳

모래성

○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안양천

고양이

○ 하천 생태계를 살려 보금자리로 만든다 (보물창고)

○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터전, 먹이들이 다양한 보물창고이다

보물창고

○ 어린이가 물속에서 첨벙거릴 수 있는 맑은 물이 있는 안양천

동심

○ 맨발로 걷기 가능한 안양천을 위해 유리조각 쓰레기를 줍는다

○ 맨발로 징검다리에 앉아서 발을 씻는다

맨발

회충

두꺼비집

임의단어고르기

안양첨병 2모둠이 선택한 단어

모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안양천 아이디어 확장

래

연상단어찾기

바닷가

○ 안양천 물은 한강을 거쳐 서해로 흐른다

수서곤충의 집

○ 물속 생물들을 위해 자연 그대로의 안양천을 내버려 둔다

모래무지

○ 모래무지가 오래 살도록 쓰레기 안 버리기

물

- 수질 모니터링
- 첨벙첨벙 물놀이하기
- 하천 쓰레기 줍기

새들의 집

○ 하천식생을 보호하여 새들의 집이 되도록 노력한다

동전

○ 동전을 모아 안양천 살리기에 기부 한다

준설

○ 안양천 생태 친구들을 관찰하고 생태 이야기를 들으며 생태 놀이를 한다

○ 쌍개울에서 물멍을 한다

은빛

○ 은빛 물결에 생물들이 노니는 안양천을 위해 유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성

○ 모래성을 만들기 위해 모래 1톤을 갖다 붓는다

배추머리

- 배추머리 같은 새들을 보호하자

소금벌레

- 안양천에서의 생태체험, 벌레 한 살이로 생태교육을 해요

중국

- 중국 안양시 관광

막걸리

- 먹거리 축제

절임배추

- 김장 동극 (어린이)

김장

- 김장 축제

초록

- 초록이 더 많은 길을 만들자
- 건강한 자연이 시민의 삶에 이익이라는 인식
- 외래종은 숙아내자

무생채

-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들이 일정한 구간을 돌면서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발표하거나 그리게 한다
- 자세히 살피기를 놀이로

마늘

- 물환경 대상을 이어 받아 GO GO!
- 마늘과 물방울의 모양이 닮았다

임의단어고르기
안양천사 3모둠이 선택한 단어

배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안양천 아이디어 확장

추

연상단어찾기

고추

- 안양천을 망치는 사람에게 고추 맛을 주고 싶다 (감시, 신고)

배추전

- 배추전과 막걸리를 싸가지고 가서 지인들과 즐겁게 먹고 오기 (뒤끝은 깨끗이)

아줌마

- 안양천 플로깅(청소)
- 걷기/달리기 대회
- 무소속 환경운동가의 저력을 발휘합시다

고랭지

- 겨울에 얼음조각들을 풍당풍당 던지기 (아이들 놀이)
- 태백 배추 농가 초청

가을

- 허수아비 꾸미기 대회
- 가을 갈대 축제
- 안양천의 가을 모습 사진전

수육

- 어류 탐사

무

- 맨발 걷기 행사

새우젓

배추흰나비

- 배추흰나비 - 나비 축제

쓰레기

- 플로깅 참여 유도
- 5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채우기 대회를 열고 그립톡 같은 안양시를 나타내는 기념품 증정

빨강 고무대야

- '빨간고무대야' 물놀이 행사

- ▶ 안양천에서 별빛 축제를 열어 어둠속에서 밤하늘의 별보기 행사 열기
- ▶ 안양천의 밤을 거닐며 별빛을 즐기자
- ▶ '안양천에 별보러 가지 않을래?' : 천문 이벤트가 있는 날 교각의 중앙, 둔치에서 별을 관측하게 하며 좋은점과 단점등을 이야기하며 나눔의 시간도 가진다
- ▶ 인공광원등의 조명을 낮추고 시간제한을 두어 별빛을 보게 하자.

별빛

- ▶ 유등에 소원을 써넣어 물에 띄우기
- ▶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천의 일정 시점에서 유등을 건져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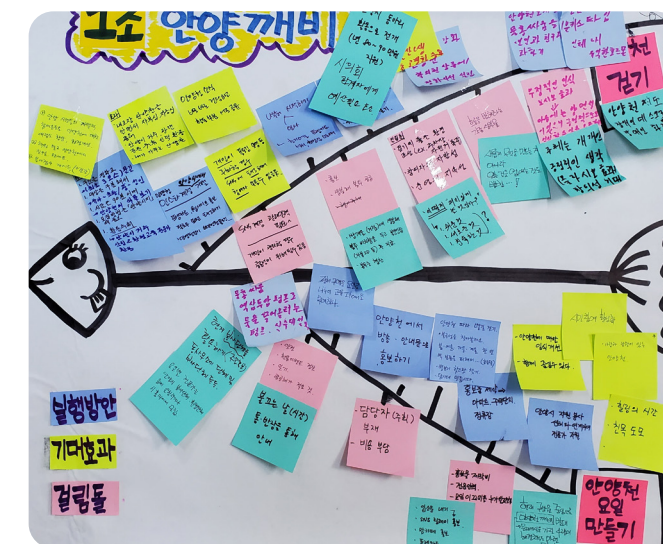
유등축제

- ▶ 맞은 편에서 오는 이웃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나누기
- ▶ 대표 인사 문구 공유하기

인사하기 캠페인

- ▶ 안양천 걷기 대회 행사를 주최하기
- ▶ 걷기대회에 참여자에게 이벤트 열기

안양천 걷기 대회



FISH BONE 유목화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안양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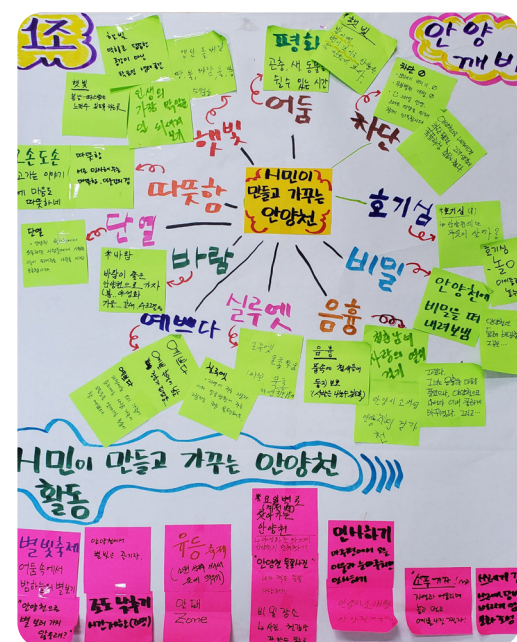
임의단어 연상작업에서 추상적으로 도출된 아이디어를

활동제안 카테고리 묶기

보다 구체적으로 묶어본다



1모듬 안양개비



안돼ZONE

- ▶ 과하게 운동시설이 많은 지역이나 자동차 주차가 많은 지역에 안돼 ZONE을 만든다

비밀스런 안양천

- ▶ 나만의 비밀장소, 특별한 자랑거리 만들기
- ▶ 포토스팟을 추천하고 사진전을 개최
- ▶ 나만의 비밀 장소, 스토리 나누기
- ▶ 내가 찍은 안양천 들꽃 사진, 안양천 철새 사진 자랑하기

매일 안양천

- ▶ 안양천의 야생화 찾기
- ▶ 안양천의 원류 찾기
- ▶ 계절별 행사

소풍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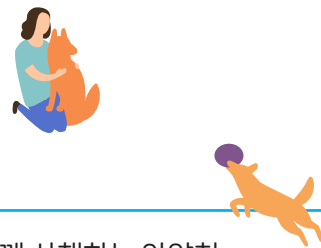
- ▶ 자연과 어울리며 함께 놀고 먹고 예쁜 사진 찍기

쓰레기감시단

- ▶ 쓰레기나 담배꽂초 버리지 않는 문화 조성하기
- ▶ 자원봉사 쓰레기 감시단

- ▶ 맨발로 징검다리에 앉아서 발을 씻는다
- ▶ 수질 모니터링하여 침범침범 물놀이 하기
- ▶ 쌍개울에서 물멍을 한다
- ▶ 은빛 물결에 생물들이 노니는 안양천을 위해 유해 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 어린이들이 물속에서 침범거릴 수 있는 맑은 물이 있는 안양천

물장구치는 안양천



- ▶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안양천

함께 산책하는 안양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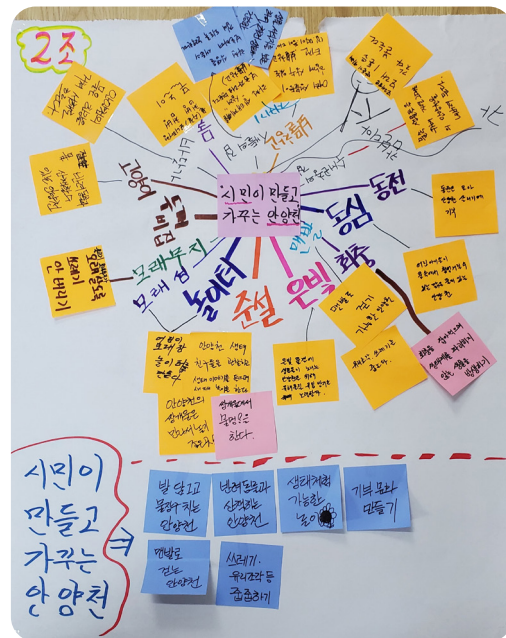
- ▶ 맨발로 걷기 가능한 안양천, 유리조각과 쓰레기를 줍는다

- ▶ 유리조각 쓰레기를 줍는다

맨발로 걷는 안양천



2모둠 안양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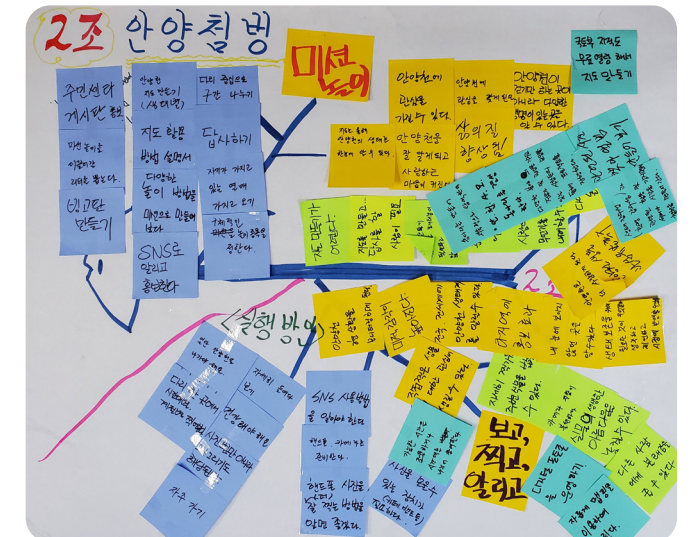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안양천

임의단어 연상작업에서 추상적으로 도출된 아이디어를

활동제안 카테고리 묶기

보다 구체적으로 묶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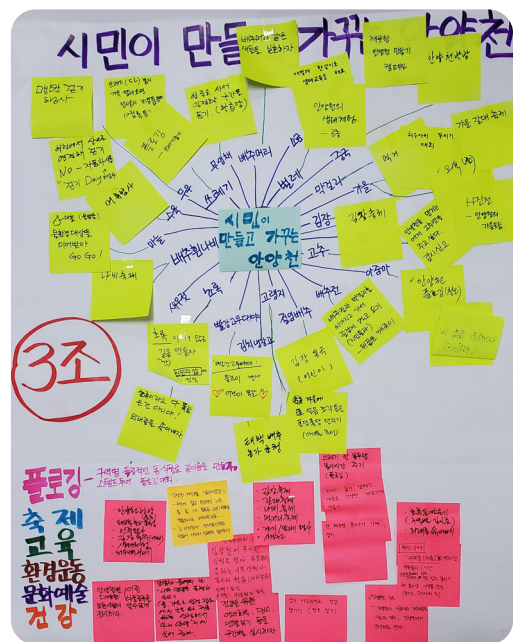
FISH BONE 유목화

생태체험 놀이터

- ▶ 물속 생물들을 위해 자연 그대로의 안양천을 내 버려 둔다
- ▶ 안양천 생태 친구들을 관찰하고 생태 이야기를 들으며 생태놀이를 한다
- ▶ 물고기 모래무지가 오래 살도록 쓰레기 안 버리기

하천생태계 만들기

- ▶ 하천 식생을 보호하여 새들의 집이 되도록 노력한다
- ▶ 하천 생태계를 살려 보금자리로 만든다
- ▶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터전, 먹이들이 다양한 보물창고이다



3모듬 안양천사



깨끗한 안양천

- ▶ 걱정 장소에 캔, 페트병 분리수거 기계 설치
-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 안양천 깨끗하게 만들기 대회
- ▶ 안양천에서 주운 쓰레기 봉투 당 봉사시간 주기, 또는 기념품 주기 (주민센터, 보건소 등)

토종 초록길 만들기

- ▶ 외래종 쉼아 내기
- ▶ 토종 초록길 만들기
- ▶ 외래종 식물 50뿌리 당 자원봉사 시간 주기

건강한 안양천

- ▶ 걷기/ 달리기 행사/맨발 걷기/에어로빅/ 댄스 등을 구간별로 실시하자
- ▶ 걷기 마일리지로 건강 챙기기(만보 걷기)

어류탐사

- ▶ 생태체험
- ▶ 어류 탐사
- ▶ 안양천에 살고 있는 어종과 식물을 전시해 많은 사람이 알게 한다

- ▶ 김장철에 유치원 등의 신청을 미리 받아서 시민단 체나 동아리를 활용한 동극을 연다
- ▶ 어린이에게 안양천을 홍보하는 계기가 된다
- ▶ 도움을 준 단체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김장 테마 축제

- ▶ 안양천 구역별 생태이름 짓기
- ▶ 일정구역에 특히 많은 나무, 꽃, 새, 동물 등의 이름을 붙인다. 예) 백로길, 청동오리길, 버드나무길 등
- ▶ 길 시작점에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사진과 설명도 넣어준다
- ▶ 스탬프 투어

안양천 투어

- ▶ 허수아비 꾸미기
- ▶ 안양천 문예의 날을 정해서 글짓기 행 - 선정된 작품은 '우리안양'에 실고, 버스정류장에도 게시하여 포상
- ▶ 안양천 가을 사진전 - 안양천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안양천에서 전시회 개최

문화가 있는 안양천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안양천

임의단어 연상작업에서 추상적으로 도출된 아이디어를

활동제안 카테고리 묶기

보다 구체적으로 묶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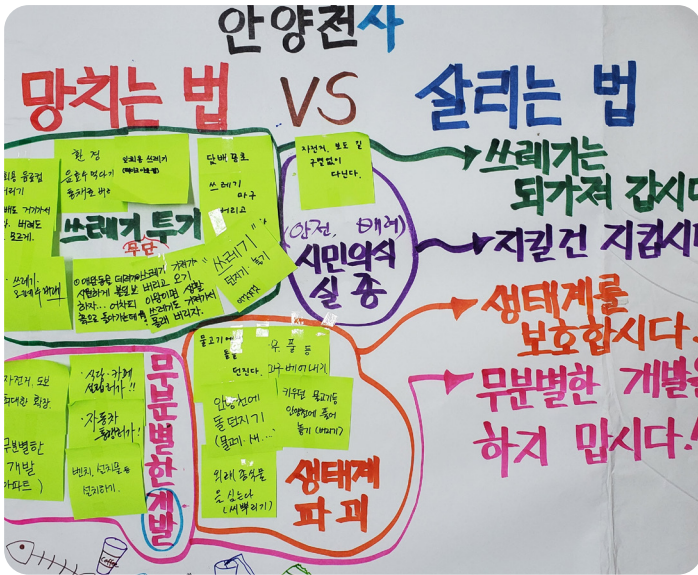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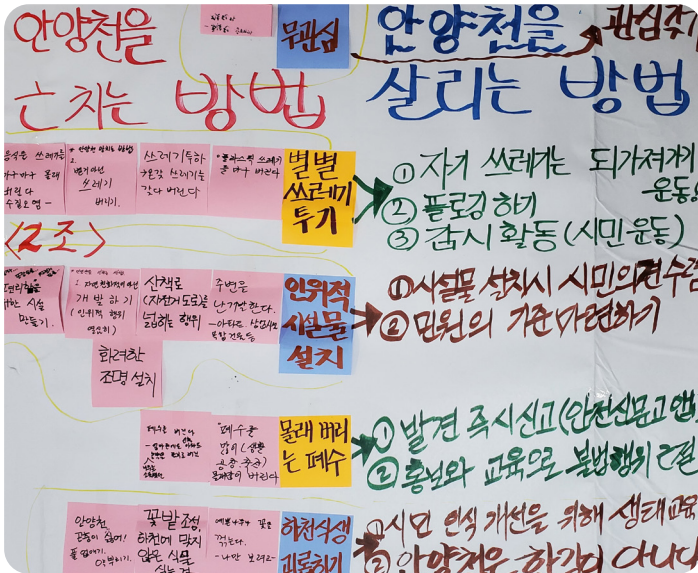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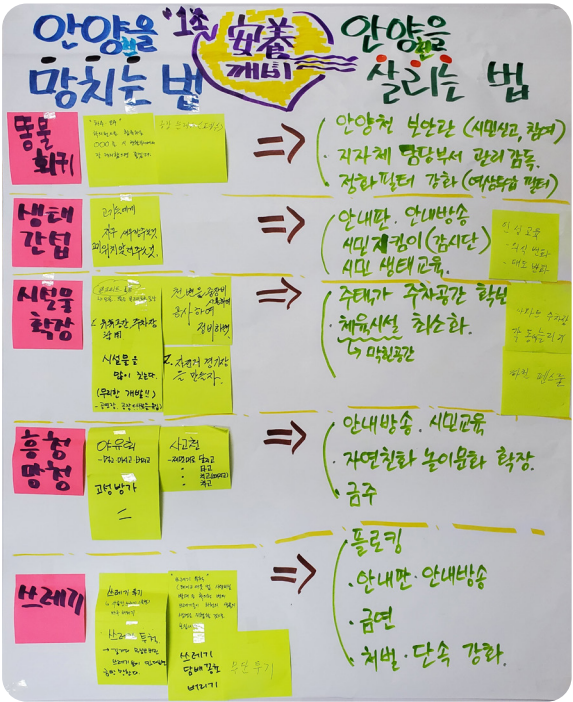
FISH BONE 유목화

소감 나누기

- 참여하러 오는 길에 차가 막혀 2시간 이상 걸렸다. 그 런데도 가지 말까 생각은 전혀 나지 않고 빨리 오고 싶더 라. 매번 기대가 되고 안양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 하는 이 자리가 참 좋다.
- 처음에는 별 생각이 안났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나도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다.
- 연휴 동안 지방 일정이 2번이나 있었고 오전 오후 숲 체험 안내를 하고 나니 오기전에 잠이 쏟아졌다. 잠깐이라 도 자면 못 일어나 결석할까봐 잠자지 않고 버티다 여기와 서 커피를 마셨다. 커피 덕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들 으니 잠이 확 깼다.
- 매주 강연해주는 내용으로 안양에 대해 안양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좋다.
- 안양대교를 중심으로 관리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뜻깊었다.
- 몸이 안 좋아 집에 쉬고 싶었는데 오길 잘 했다.
- 지금 나누는 안양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확장하 면 좋겠다.
- 임의단어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나, 나이 가 드니 생각에 한계가 있어 아쉽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매번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니 좋다.



- 점점 안양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변화되지 않는 안양천에 대해서 답답한 느낌이 든다. 변화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해주면 좋겠다.
- 2주 동안 지방 출장이라 참석을 못했으나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겠다.
- 생태하천이 아닌 안양천이 아쉽고 자전거도로 확장으 로 변하는 안양천이 아쉽다.
- 안양천 문화 만들기 토론을 하면서 회차마다 만들어내 는 결과물을 여기서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 공유하면 안양천에 대한 관심을 더 많 이 모았으면 좋겠다.
- 모임 전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고 와야지 하면서도 일상에 쫓기다 보면 그냥 오게 된다. 활동을 같이 하다 보 면 어느새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협동의 힘이 참 강하다는 걸 깨닫는다.
- 강사님의 설명으로 안양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 이 많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양천이 더욱 좋아지겠다는 기 대를 하게 된다.
- 혼자 안양천을 거닐며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나오 는 아이디어들이 훨씬 다양해서 좋다.



내가 생각하는 안양천 최고의 활동은?

안양천 걷기 (최다득표: 5표)

- ▶ 안양천 물길따라 걷기: 안양천을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안양천 원류까지 걸으면서 계절별 안양천 즐기기
- ▶ 내별은 어디에? '별찾기': 안양천 주변 밝기에 따라 별이 많이 보이는 장소를 모색하기
- ▶ 정기적인 소모임을 통해 안양천을 걸으면서 '플로깅' 하기
- ▶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안양천을 소중하게 가꾸는 '플로깅'
- ▶ 안양천을 걸으면서 오고 가는 이웃에게 인사 나누기
- ▶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면서 거닐 수 있는 안양천 만들기

안양천 요일 만들기 (최다득표: 3표)

- ▶ 일,월,화,수,목,금,토-해,달,꽃,물,돌,흙을 바탕으로 일광욕하기, 별 보기, 달 보기, 계절별 안양천 주변 꽃 보기, 물멍하기, 안양천 돌 찾기, 맨발로 흙길 거닐어보기로 요일별 이벤트
- ▶ 안양천 유역 좌안과 우안에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돌탑 쌓기
- ▶ 돌탑을 쌓을 수 있는 일정한 구역 알아보기

생태체험

- ▶ 안양천을 따라 외래종 동·식물의 정보 공유
- ▶ 생태학습도 하고 스스로 가꾸고 체험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법 배우기

문화존

- ▶ 안양천 여름과 가을철에 '안양천 역사' 영화 보기

돼Zone & 안돼Zone

- ▶ 여울물 소리 Zone에서 친구와 연인과 물흐르는 소리 듣기
- ▶ 팬스싫어 Zone에서 운동시설 팬스 걷어내기

내가 생각하는 안양천 최고의 활동은?

미션놀이 (최다득표: 5표)

- ▶ 코스별 지도 한 장 들고 모험하기
- ▶ 하트 앞 찾기
- ▶ 곤충 찾기
- ▶ 뛰는 물고기 발견하기
- ▶ 꽃색 종류(3송이)
- ▶ 열매놀이 (도토리,싸앗)
- ▶ 코스별 (전체코스) 함께걸고 인증받기

보고찍고 알리고 (최다득표: 4표)

- ▶ 안양천 사진 찍어 공유하기
- ▶ 지역별 시기별 꽃 사진 찍어 공유
- ▶ 안양천 구간 식물 사진 찍어 공유하기

안양천을 느껴봐

- ▶ 바람,어둠,이슬 어스름을 오감으로 느껴보자
- ▶ 여름방학 이른 아침 출석 도장 찍기!
- ▶ 아침이슬이 맺힌 하천길을 걸으며 꽃과 식물 느끼기
- ▶ 바람 부는 날 해질 녘 수풀이 흔들리는 모습 느끼기
- ▶ 안양천에서 노를 바라보기 번개모임을 통해
- ▶ 째깍한 안양천을 후레쉬 비추고 걷기!

안양천 물멍하기

- ▶ 물멍을 하면서 물속에 비치는 것을 관찰하고 계절별 변하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느끼자

내가 생각하는 안양천 최고의 활동은?

문화예술
(최다득표: 5표)

- ▶ 허수아비 꾸미기 대회
- ▶ 안양천 사진전 : 계절별 안양천의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전시
- ▶ 다리 밑 문화제 : 안양천의 각 다리마다 개성있는 문화제 개최 (관리하는 단체, 단지 등 조직 배정)
- ▶ 안양천 음악 공연 : 쌍개울 광장에서 댄스, 노래, 악기 등.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
- ▶ 안양천 백일장 : '안양천'을 주제로 시, 산문 등을 같이 씀

안양천 만남
(최다득표: 4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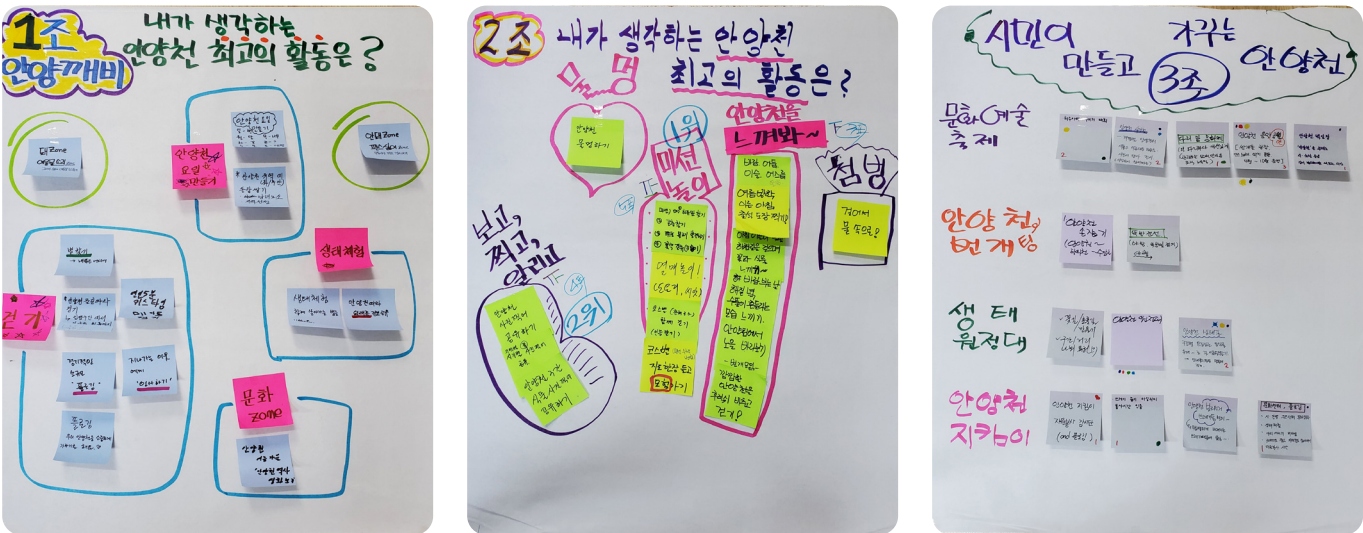
- ▶ 안양천 손잡기 :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등에 시민들이 모여 처음 보는 사람과도 손을 잡고 길게 연결해 봄. 정서적 유대감과 안양천에 대한 애정 고취
- ▶ 뚝방 전설 : 야간에 뚝방길 걷기 - 밤의 정취를 맛보는 정서적인 활동과 취약한 방법 구역 발굴 병행

생태원정대
(최다득표: 3표)

- ▶ 꽃길/초록길 만들기 (구간, 거리를 나눠 특화)
- ▶ 안양천 원정대 : 경기 꿈의 학교 연계. 생태체험. 지도 만들기. 안양천 구역별 이름짓고 안내 표지판 세우기 (특징적인 나무, 풀, 꽃, 새, 동물 등의 이름 붙임. 예) 백로길. 천둥오리길. 버드나무길 등)

안양천 지킴이

- ▶ 안양천 지킴이 : 자원봉사 감시단(and 플로깅)
- ▶ 쓰레기 줍기 : 마일리지. 봉사시간 인증
- ▶ 안양천 분리수거통, 쓰레기통 설치 :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



안양천 걷기
(최다득표: 5표)

☑️ 실행방안

- ▶ 최소 3개의 코스로 물길의 구간 정하기
- ▶ 안양천 걷기의 대상을 유아~초등 / 중등~성인으로 구분하기
- ▶ 안양천 걷기 시간을 90분 이내로 정해서 안양천의 식물 탐색하기
- ▶ 모집방법은 안양시지를 이용하여 공고
- ▶ 활동주체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산림&환경교육 전문가를 활용
- ▶ 홍보방법은 안양시에서 안양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진행
- ▶ 현수막, 웹사이트 등 온·오프 동시에 홍보 진행
- ▶ 팔로워를 모으고 서로 태그하기 진행 (안양천 걷기, 안양청 플로깅 등)
- ▶ 'OO와 함께' 격주 토요일에 진행
- ▶ 가족단위 또는 친구들끼리 함께
- ▶ 생분해 봉투에 쓰레기를 주워서 담기
- ▶ 5천보 걷기 인증하기
- ▶ SNS를 통해 릴레이 걷기 행사 진행
- ▶ 안양천 물을 이용한 물총싸움 구역 만들어 활동하기
- ▶ 친구와 연인과 물총싸움 함께 하기
- ▶ 연인과의 화해Zone을 만들어 1분키스 타임만들기
- ▶ 개인이 플로깅 모임을 개최할 경우 SNS 태그를 통해 참여자를 모을 수 있다



☑️ 기대효과

-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안양천에 대한 애정이 향상되고 환경도 개선한다
- ▶ 학원 말고 안양천에서 친구들을 만나요
- ▶ 안양천에서 플로깅도 하고 봉사점수도 받고 건강까지 얻으니 엄청난 일
- ▶ 내고장 안양천을 잘 알아가면서 자부심과 자긍심 극대화
- ▶ 안양시민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 ▶ 내가 가꾸고 살피는 안양천
- ▶ 안양천 관련 소식을 바로바로 전달하고 활동부분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시로 저출산 문제 해결

안양천 걷기
(최다득표: 5표)

☑️ 걸림돌

- ▶ SNS계정 관리 인력 필요
- ▶ 개인이 관리할 경우 공공성이 반할 수 있음
- ▶ 홍보방법을 모색해야 함
- ▶ 생분해 봉투 공급처 및 공급 방법
- ▶ 걷기 행사의 주체 선정
- ▶ 안양시민이 안양천을 걷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함 (예: 주차장이나 자전거가 폭주할 경우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함)
- ▶ 참여자의 자발성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가
- ▶ 한번 두 번의 이벤트 성이 아니라 운영의 지속성 여부가 문제
- ▶ 안양천 걷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설치물
- ▶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

안양천 요일
만들기
(최다득표: 3표)

☑️ 실행방안

- ▶ 안양천 요일과 관련 된 안내를 방송이나 안내문으로 홍보하기
- ▶ 안양천을 따라 야간 별길 걷기를 통해 북극성 찾기
- ▶ 사계절 한번씩 밝은 달이 뜨는 보름을 피해 그믐이나 초승달이 뜨는 시기에 진행
- ▶ 별보기 딱 좋은 핫스팟 찾기 대회
- ▶ 안양천 탐색대를 미리 만든다
- ▶ 안양천 요일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파트나 주택단지, 주차장에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알린다.
- ▶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활동진행이 가능한 전문가를 지원받는다
- ▶ 전체 구역을 요일로 나누어서 고유 아이템을 부여하여 진행한다
- ▶ 공공해를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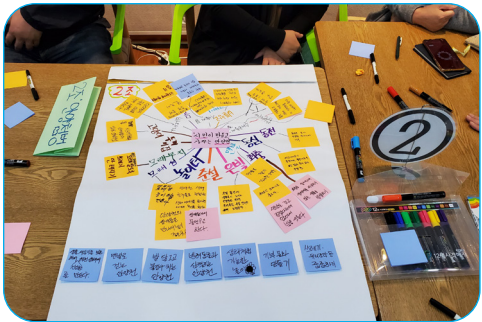
☑️ 기대효과

- ▶ 안양천에 대한 인식 개선
- ▶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
- ▶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 된다
- ▶ 힐링의 시간이 된다
- ▶ 친목 도모의 시간
- ▶ 사랑과 낭만이 있는 안양천을 만들 수 있다

안양천 요일
만들기
(최다득표: 3표)

☑️ 걸림돌

- ▶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
- ▶ 천문 이벤트 정보등이 필요
- ▶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
- ▶ 안양천 요일 행사의 담당자(주최)의 부재
- ▶ 제반 비용의 부담
- ▶ 홍보물 제작비 지원
- ▶ 전문인력과 매칭의 어려움
- ▶ 행사 모임을 이끄는 리더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미션놀이
(최다득표: 5표)

☑실행방안

- ▶ 다리를 중심으로 구간 나누기
- ▶ 현장답사를 한다
- ▶ 안양천의 지도를 생태별로 만든다
- ▶ 지도의 활동 방법 설명서로 만든다
- ▶ 다양한 놀이 방법을 미션으로 만들어본다
- ▶ 구체적인 놀이 종목을 정한다
- ▶ 미션놀이를 이끌어 갈 리더를 뽑는다
- ▶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 가지고 오기
- ▶ 빙고판을 만든다
- ▶ SNS로 알리고 홍보한다
- ▶ 주민센터 게시판에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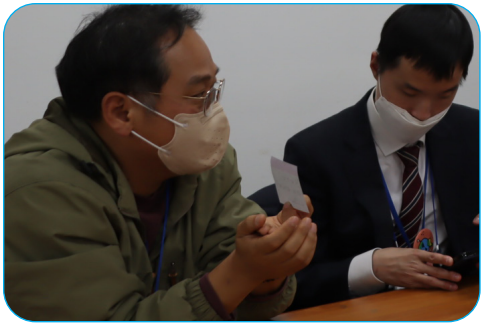
☑기대효과

- ▶ 지도를 통해 안양천의 생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 ▶ 안양천을 잘 알게 되고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
- ▶ 안양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 삶의 질 향상됨
- ▶ 안양천이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사는 곳을 알 수 있다

미션놀이
(최다득표: 5표)

☑걸림돌

- ▶ 지도 만들기가 어렵다
- ▶ 지도를 만들고 답사를 할 사람이 필요
- ▶ 지도를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 준비 과정이 어렵다
- ▶ 사람의 시각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어야만 할 수 있다
- ▶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아야 한다



보고찍고
알리고
(최다득표: 4표)

☑실행방안

- ▶ 일단 안양천을 나가야 한다
- ▶ 자주 가기
- ▶ 다리 한곳에서 시간대별 계절 별로 찍어 본다
- ▶ 자세히 들여다보기
- ▶ 건강해야 한다
- ▶ 사진뿐만 아니라 그림그리기도 해당된다
- ▶ SNS 활용 방법을 알아야 한다
- ▶ 핸드폰과 카메라를 준비한다
- ▶ 핸드폰으로 사진을 더 잘 찍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 ▶ 사진을 찍은 뒤 모을 수 있는 장치(카페나 밴드 등)가 필요하다

☑기대효과

- ▶ 안양천의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 ▶ 미적 감각이 높아진다
- ▶ 자신이 직접 찍은 생물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다
- ▶ 전국 전 세계에 안양천 생태계를 알릴 수 있다
- ▶ 타 지역에 홍보 효과가 생긴다
- ▶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곳을 알 수 있다
- ▶ 생태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언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 ▶ 안양천을 더 사랑하게 된다
- ▶ 안양천 생물 관심 유발을 촉구할 수 있다

보고찍고
알리고
(최다득표: 4표)

☑걸림돌

- ▶ 자세히 찍기 위해서 주변의 식물을 밟을 수 있다
- ▶ 카메라 지참하기가 불편하다
- ▶ 식물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다
- ▶ 사진 찍기 위해 오래 지체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문화예술
(최다득표: 5표)

☑실행방안

- ▶ 주민자치센터나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참여도를 높임
-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활용 홍보
- ▶ 구역별 담당자 정해 운영
- ▶ 안양천의 날 지정해서 정기운영하거나 번개모임으로도 운영(모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함께 운영)
- ▶ 인증샷 올리기(옆에 모인 모르는 사람1인과 함께)
- ▶ 랜덤 행사 운영(현장에서 즉석으로 에어로빅. 멍때리기, 책읽기, 버스킹 등에 참여할 수 있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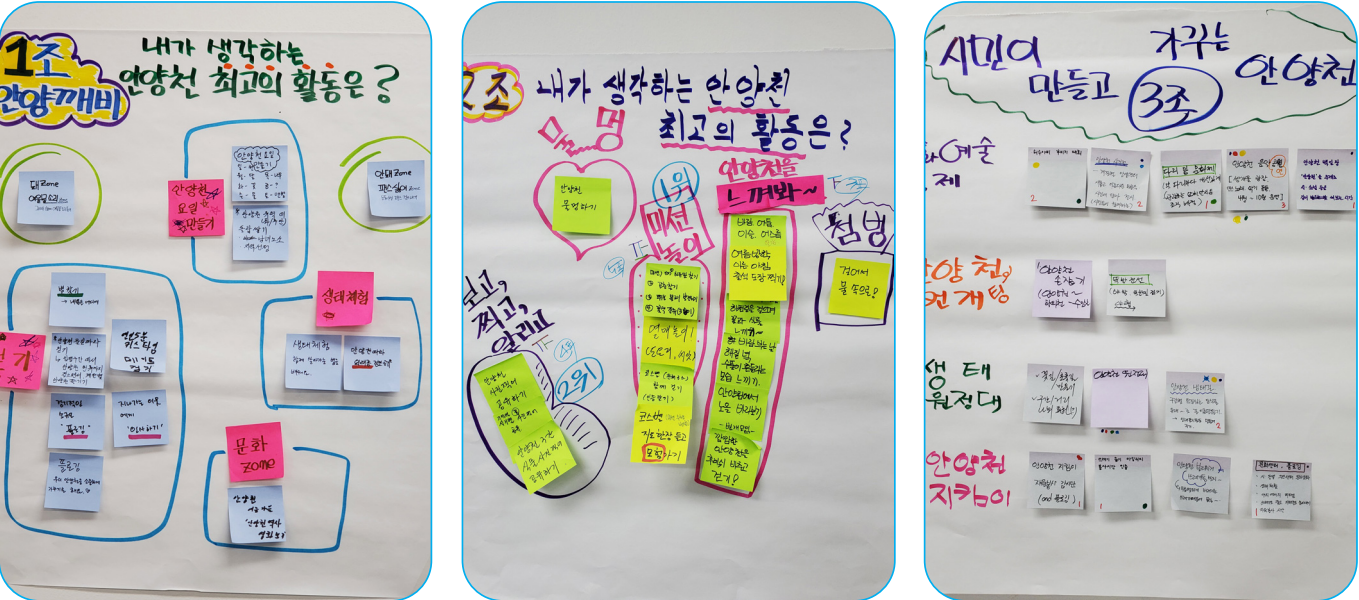
☑기대효과

- ▶ 일상의 이벤트가 될 수 있음(즉발적인 만남의 즐거움)
- ▶ 안양과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킴
- ▶ 즐거움 선사
- ▶ 안양시민으로서 자부심 느낌
- ▶ 시민화합
- ▶ 안양천에서 개최 가능한 문화행사와 연결시키는 역할
- ▶ 가벼운 마음으로 안양천 즐길 수 있음
- ▶ 안양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 ▶ 우리의 안양천에서 나의 안양천으로(안양천에 대한 애착 키움)

☑걸림돌

- ▶ 나이 드신 분이나 SNS를 하지 않는 분은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기상 조건에 따른 축소 가능성
- ▶ 공지/게시 등 특정 번개일 지정 한계
- ▶ 행사가 자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듯함
- ▶ 지속성(꾸준히 할 수 있는가)
- ▶ 많이 모일까?

문화예술
(최다득표: 5표)



안양천 만남
(최다득표: 4표)

☑️ 실행방안

- ▶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적극 지원
- ▶ 다양한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 ▶ 경기 꿈의학교 이용
- ▶ 안양천의 생태지도 드이디
- ▶ 사진을 찍고 기록하기
- ▶ 안양천과 얽힌 추억,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남김
- ▶ 대상은 초등학생. 생태활동은 안양천 따라 탐방하며 구간별 이름짓기
- ▶ 교각이나 건물 단위로 구간 정하고 표지, 안내지도 마련
- ▶ 홍보: e알리미, 현수막, 시청 홈페이지
- ▶ 안양천과 생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강사 모집, 교육의도를 포함한 안양천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생태교육 실시 후 안양시민 대상으로도 교육
- ▶ 안양천사 인증 : 각 지점 설정 후 미션 수행하면 스탬프 찍어 확인



☑️ 기대효과

- ▶ 위치 특성화
- ▶ 만남이나 행사 개최 시 활용 가능
- ▶ 아이들에게 안양천의 생태에 대해 알려주고,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음
- ▶ 지도를 만들어 안양천을 구역별로 이름 지을 수 있음
- ▶ 자연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심각성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 키움)
- ▶ 아이들이 안양천의 역사를 알 수 있음
- ▶ 안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음
- ▶ 생태를 체험할 수 있음
- ▶ 교육적 효과 있음
- ▶ 활동, 체험으로 안양천을 즐길 수 있음

안양천 만남
(최다득표: 4표)

☑️ 걸림돌

- ▶ 안양천의 생태, 문화, 예술, 역사를 잘 아는 선생님이 계실까?
- ▶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 ▶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서도 진행하고 있을 것 같고, 안양천 주변 학교에서도 숲(안양천) 교육이 있어서 차별화도 필요
- ▶ 시청의 관심과 적극성이 변수
- ▶ 안양천으로의 도로 접근성 불편
- ▶ 중,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할까?
- ▶ 우천 시에는 어떻게 하지?

소감 나누기



- 안양천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면서 가족들과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함께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서 편안하다.
- 처음에는 바로 안양천에서의 활동을 생각하는 게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생각났고, 활동의 연속성이 있어서 좋았다.
- 오후 늦게까지 다른 일정으로 조금 늦었는데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참여하고 싶었다.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비교당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져서 더 오고 싶기도 했다.
-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서석원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내가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해서 어려웠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더디지만 많이 배운다.
-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니 즐거웠다.
- 안양천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씩 실현될 상상을 하니 좋았다.
- 회차가 늘어갈수록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실현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느껴지기도 한다.
- 처음이라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아 의견을 많이 못 내서 아쉽지만 많이 배우고 간다.



- 우리가 나눈 대화들이 얼마나 사업 제안에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재단에서 추구하는 바에 맞지 않아서 폐기된다해도 우리에게 결과와 폐기 사유를 알려주면 좋겠다.
-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기회가 되어 아주 좋았다. 다음에도 참여를 계속하고 싶다.
- 사고 확장의 기회였다.
-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안양천 문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몰입의 즐거움과,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 아이디어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업체에 용역을 줘 버리는 것은 간단한데,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려는 시의 의지가 감동적이다.
- 갈수록 압박감이 오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어 좋다.
-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력적이다.
- 바로 실현이 되지 않을지라도, 안양천과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이런 모색의 시간이 쌓이면 더 좋은 안양천으로 바뀔 것 같다.

안양천 활동 걸림돌의 해결방안 모색

안양천 걷기	
걸림돌	해결방안
✗ 걷기에 좋은 환경 조성의 어려움	➔ 주차장이나 자전거 폭주의 주요 장소를 조사한다
✗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설치물	➔ 새롭게 무엇을 만들기를 하기보다 기존의 있는 설치물을 없애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
✗ 생분해 봉투 공급 방법	➔ 쌍개울을 거점으로 삼아 봉투 비치함을 두고 자원봉사 ID등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봉투를 지급한다 ➔ 생분해 봉투는 협찬을 받는다
✗ 참여자 자발성과 운영지속성	➔ 어떻게 재미있게 놀 것인가를 고민한다 ➔ 쉬운 것, 새로운 것, 친숙한 것을 고민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은다
✗ 장애인의 참여의 어려움	➔ 계단보다 완만한 경사로를 조성한다 ➔ 리프트를 설치한다 ➔ 장애인 화장실을 만든다
✗ 안된다는 부정적인 인식	➔ 개개인의 긍정적인 생각을 모아 공유한다



안양천 요일 만들기	
걸림돌	해결방안
✗ 홍보 제작비 및 비용 부담	➔ 안양시 동아리 활동으로 전개 (연 80~90만원 지원 가능) ➔ 시의회 관계자에게 예산필요를 호소하고 참여와 지원을 받는다
✗ 홍보의 문제	➔ 입소문 내기 등 지인들에게 소개하기 ➔ SNS를 통한 릴레이 홍보 ➔ 맘카페를 통한 홍보 ➔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 현수막을 설치한다
✗ 담당자 및 주최의 부재	➔ 현 <안양천, 요즘 어때요>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을 중심으로 안양 깨비 발대식 진행 ➔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도 마련한다 ➔ 안양천 탐사대를 구성해서 현상파악, 원인과 문제 확인 그리고 솔루션 도출
✗ 전문 봉사 인력 마련의 어려움	➔ 현재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단체 홍보 실시 ➔ 동사무소에 단체 및 봉사단체 확인 ➔ 요일별 전문가는 안양시 봉사단체와 환경단체등에 요청한다 ➔ 안양시 홈페이지에 직접 모집을 공고한다
✗ 천문 이벤트의 어려움	➔ 안양천 주변이 너무 밝으면 어려움이 있으니 불끄는 날과 시간을 정해서 통반장을 통해 안내하고 협조를 구한다

안양천 활동 걸림돌의 해결방안 모색

미션 놀이

걸림돌

❌ 지도 만들기가 어렵다

➡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해서 지도 만들기

❌ 지도를 만들고 답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 동아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탐색한다

❌ 지도제작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자원봉사센터와 1365를 통해 봉사시간 인증제를 연계해 보상체계를 만든다.

➡ 관련된 활동 및 세미나 시간을 가지면서 철학을 만들어간다.

❌ 준비 과정이 어렵고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아야 한다

➡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사람의 시각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어야만 할 수 있다

➡ 관련된 사진을 찾아 앨범을 만들어본다.



보고 찍고 알리고

걸림돌

❌ 자세히 찍기 위해서 주변의 식물을 밟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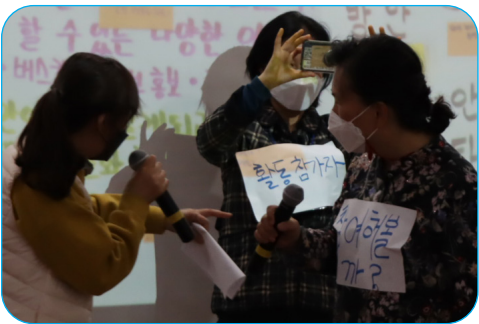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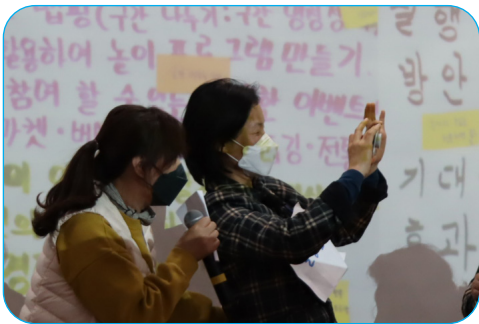
➡ 자유롭게 커뮤니티맵핑을 이용하여 주변 상황을 사전 공유한다.

❌ 사진 찍기 위해 오래 지체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 가능한 시간을 조율하거나 시간대를 나누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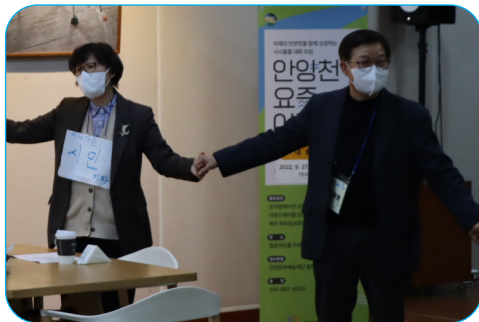
❌ 식물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다

➡ 디지털 포토존을 운영한다.



안양천 활동 걸림돌의 해결방안 모색

안양천 손잡기	
걸림돌	해결방안
❌ 고령자나 SNS 하지 않는 분은 참여가 어렵다.	➡ 가족 소통(세대간 소통)으로 해결한다 ➡ 스마트폰 활용 교육 병행 ➡ 다양한 홍보 방법 사용 : 주민센터, 노인정에 홍보물 부착
❌ 기상 조건에 따른 축소 가능성	➡ 필요시 지역 통장 통해 전단지 배포 ➡ 기상 조건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 만들기 ➡ 사전에 기상 확인 ➡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모이면 된다 (재미와 의미는 만들기 나름)
❌ 번개팅의 홍보 한계 지속성	➡ 특정일 지정해 운영(안양천의 날). SNS 적극 활용 ➡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유도 ➡ 3개월에 한 번, 3일 전 공지 ➡ 소조직 운영도 필요 ➡ 선착순 100명 기념품 제공 등의 이벤트



안양천 원정대	
걸림돌	해결방안
❌ 선생님 참여와 모집 한계	➡ 재능기부 이용(생태, 문화, 예술, 역사 지역 선생님) ➡ 안양천 관련 강사 양성
❌ 차별화는 어떻게	➡ 안양천 자연 그대로 운영이 차별화다 ➡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본다
❌ 지속성	➡ '생태이야기관' 연계 활성화 ➡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 학교와 연계 : 중,고등학생의 참여는 봉사점수를 활용. 직업,진로 수업의 연장선으로 활용 - 예)도시개발계획 전문가, 환경전문가 등
❌ 비가 오면?	➡ 우비 입고 하는 것도 재미



소감 나누기



- 지난 5회기에 안양천의 실행방안과 걸림돌 할 때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6회기에는 어려운 고민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만족한다.
- 지난주 아이디어가 산발적으로 나와 복잡했는데 오늘 하나씩 정리가 되어 신기했다.
- 이제 다음 주 한번 밖에 안남았다는게 너무 아쉽기만 하다.
- 화요일이 되면 평촌아트센터로 오는 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서, 다음 주 7회차 마치고 우리 조 안양개비 분들과 화요일에 만나도 좋을 것 같다.
- 지난 5회기에 다른 일과 겹쳐서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아이디어들을 이젤에 하나씩 적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있었다.
- 아이디어 확장을 거의 마쳐, 다음주 마무리 활동만 남겨두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
- 보면 반가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고 간식을 매주 신경 써 주시는 재단에도 고맙다.
- 동아리 모임처럼 꾸준히 이어가서 앞으로도 안양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 다른 팀의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보면서 안양천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구나 느꼈다.
- 매회 지날수록 토론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다시 볼 수 있으니 활동제안이 더욱 구체화 되어간다. 복습의 효과를 느낀다.
- 갤러리 워크를 하며 돌아보니 모든 참가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다른 조도 우리 조와 같은 내용이 많은 것 같다.

- 안양천을 지키자고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자는 것이 생태계를 더 파괴하는 게 아닐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 그대로 두는 것에 공감하지만 긍정적인 제안을 만들어 갈 필요성 있다.
- 안양천 보호를 위해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관심 갖는 것은 좋다.
- 긍정적으로 안양천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 안양천을 지키고 보존하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 힐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난 주에 빠지니 오늘 힘드네요. 지난 번에 오신 분들 많이 애쓰셨다는 걸 알겠습니다.
-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또 함께 하니 되는군요.
-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 의견을 수렴해 정리해 나가는 게 힘들다는 걸 또 실감합니다.
-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는 의욕이 또 다른 걸림돌!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정리가 되니 실현가능성이 더 있어 보여 좋아요.
- 혼자보다는 여럿이 힘이 세다.

안양천
요즈
어때요?
활동제안 모음

이번 장은 7회차의 대화모임에서 도출된 시민의견을 재구성하여 발표합니다

활동제안 모음

안양천, 요즘 어때요?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각 모듈별로 분화되어 있어 재구성했다.
 참여자들이 도출한 활동제안은 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다.

	안양천의 숨은 보물 찾기	시민이 자주 가고 싶은 안양천 만들기
관찰	1. 안양천 홍보대사 안양천사 양성하기	안양천사 - 안양천 홍보대사 안양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역할 개인SNS, 공식계정을 모두 활용 모집 후 기본교육 실시
	2. 안양천 답사와 커뮤니티 매핑 지도 활용 놀이개발 생태지도 만들기	안양천 정기답사 동아리 운영 커뮤니티매핑과 생태지리연구 모임 구성 교육과 활동을 병행 안양천의 바이오플리츠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 가능
	3. 시민참여 이벤트 플리마켓, 버스킹, 전통놀이	시민참여 기획단 구성 안양천변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속 운영 시민의견을 수렴해 참여기획단 분산운영
기록	보고 찍고 알리고	살아 숨쉬는 안양천을 지킨다
	4. 안양천의 사진기록자 디지털포토존 운영	사진동아리 정기모임 아마추어 지도 또는 휴대폰 촬영 지도 시의 도움으로 디지털포토존 운영 SNS인증샷 이벤트
	5. 안양천 풍경 아카이브	안양천 관련 사진 지속적 아카이빙 안양시에서 아카이브웹사이트 운영 시민누구나 참여 가능한 형태
	6. 안양천 추억나누기 사진전, 문예행사	주기적으로 안양천에 관한 전시회 운영 야외 전시, 실내 전시, 온라인 전시 병행 사진 뿐 아니라 시화전 등 문예행사도 정례화

안양천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느끼고, 누리고, 공동체 내에 안양천을 주제로 한 활동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안양천 원정대	걷고 싶은 안양천 만들기
참여	7. 안양천 시민운영단 운영 유니버설 디자이너 팀 운영	안양천의 관리 및 치수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 체계 보행약자 접근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팀 운영 생물다양성 반영하는 안양천디자인팀 운영
	8. 안양천 걷기 구간 조성하기 스탬프 투어, 교각투어	교각마다 구간을 설정해 시민들이 쉽게 찾도록 안내 교각특성 및 스토리텔링 구성 스탬프투어를 운영해 건강포인트 등을 적립
	9. 산림, 환경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안양천 생태문화교육	안양천 생태문화강사 양성 관내 학교와 기관 연계하여 안양천 관련 교육 진행 안양시민대상 안양처 도슨트 운영
확산	오늘은 안양요일	알수록 더 좋아지는 안양천
	10. 오늘은 안양요일 매일 매일 안양천 이벤트 내가 만드는 안양천 이벤트	요일마다 연령대, 계층별 취향에 맞는 이벤트 운영 별보기 좋은 장소 찾기 대회 등 다양한 참여이벤트 시민제안 이벤트를 실천하도록 유연하게 운영
	11. 안양천 손잡기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인간띠잇기 실천 연중 1-2회 일정 특정하여 안양천의 날로 정하고 시민참여유도 랜덤행사 운영, 참여코드 맞추기, 유튜브 생중계등 다양한 즐길거리 마련

안양천
요즘
어때요?
안양천, 요즘

이번 장은 3회에 걸친 특강내용과 수행업체인 문화공동체 히응의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2016년 쌍개울 (사진 : 안양시청)

현재 안양시의 한 가운데에는 쌍개울이라는 지점이 있다. 쌍개울은 두 개의 개울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긴 하지만 강에 준하지 않는 개천에 준하는 곳이라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개울이라 불렀다.

안양시의 설명에 따르면 안양천은 서기 1400년 경에는 대천大川으로 불렸으며 조선 후기에는 기탄(岐灘)으로 불렸다고 한다. 탄은 흐름이 빠른 개천을 칭하는데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야 물살이 세게 흐르기 마련이므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을 주로 탄이라 부른다.

한강은 경기도지역의 각 지류가 더해져 거대한 강을 이루는데 그 중 안양천의 지분이 커 제1지류로 꼽는다. 안양의 쌍개울은 안양천의 지천중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학의천과 안양천이 맞닿는 곳이다. 안양천은 다른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물과 결합해 서울로 나아가 한강에 합류한다.



안양천에 유입되는 법정하천

학의천 : 백운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안양천으로 유입

삼성천 : 안양천의 제1지류. 금천구 시흥동 동쪽, 삼성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서쪽에서 삼막사와 만나 안양천으로 유입

수암천 : 수리산 자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안양천으로 유입

삼막천 : 삼성산 동쪽계곡의 삼막사 부근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으로 유입

목감천 : 시흥시 목감동 630고지 서쪽계곡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으로 유입

도림천 : 안양천의 제1지류로 관악산과 삼성산 중간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으로 유입

안양천에 접하는 기초단체

경기도 7개시(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시흥시, 과천시, 부천시)

서울시 7개구(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총 14개 기초자치단체에 이어짐

근대이전의 안양천

안양의 발원지 안양천

세계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풍부한 물이 보장된 지역은 먹거리역시 풍족해져 사람들이 모여살기 좋다. 안양천 주변의 선사시대의 유적이 남아있는 부분, 평촌동 주변에서 발견된 지석묘와 관양동의 신석기 주거유적지가 그 반증이다.

평촌동 주변의 지석묘는 발굴당시 존치를 놓고 지역내 갈등이 불거져 현재는 안양천과 꽤 멀리 떨어진 자유공원에 약 10여기가 놓여있다. 관양동 선사유적지는 청동기때 유적지로 역시 안양천과 거리가 있는 편인데 현재 동편마을 개발 이후 완전히 소외되어 지역 주민들도 잘 찾지 않는다.

이 지류 중 하나인 현 안양예술공원의 삼성천에서 안양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 김중업박물관 자리는 안양사터였다. 안양사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라 효공왕 4년에 왕건이 금주와 과주 정벌을 위해 지나다 산 위의 구름이 오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구름 아래서 능정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안양사를 창건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능정스님을 만나 왕건과 뜻이 같아 안양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은 안양시사에 언급된 내용인데 여러 곳에서 중복발견되는 문장이다. 다른 문헌에 따르면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을 위해 남쪽으로 군사 원정을

가던 길에 능정이라는 고승이 권유하여 사찰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유지되었으나 16세기 후반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양사지에서 여러 유적이 발견되었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은 많지 않다.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안양사지의 흔적이라 유지되고 있다.

안양사터는 상당히 광대했다고 전해진다. 한국전쟁 이후 새로 지은 안양사와 현재의 중초사지 당간지주까지의 일대가 모두 안양사였다는 주장이 있다. 태조 왕건의 고려는 불교를 국훈으로 했던 만큼 1개의 마을규모의 사찰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상상해볼 수 있다. 사실이라면 안양사터는 바로 삼성천 인근에 지어진 것으로 이 역시 안양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볼 수 있다. 16세기 말 안양사가 사라진 다음에도 역사는 안양천의 지천이 등장한다. 관악역 인근의 삼막천은 조선 후기 정조대왕이 수원과 화성 용건릉에 가는 화성행차에 지나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은 왕조국가로 원래는 왕이 한 번 지나간 다리를 일반 백성이 지나갈 수 없어 나무다리를 임시로 설치하곤 했으나 만안교의 경우는 정조가 다리를 지었다 부수는 것이 낭비라 여겨 돌다리로 만들어 나중에 백성들도 이용케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정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스토리텔링을 남긴 왕이라 수원은 정조대왕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내보이고 있다. 이에 부흥하듯 안양도 삼막천의 만안교를 안양9경 중에 넣어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 김중업박물관 2010년 안양사지
발굴장면
사진제공 : 최병렬 (2010.8)



안양천, 요즘

안양9경 만안교의 가을
사진 : 안양시청 (2021.11)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시기까지 도구로서의 안양천

조선의 안양천이 당시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안양천이 여가자원으로 활용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의 안양예술공원은 삼성천을 끼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1930년대 일제총독부는 안양천의 가치를 여가수단으로 삼아 활용한 증거가 여러 곳에 남아있다.

첫 번째는 안양예술공원 중간 지점에 있는 표지석이다. 이 표지석에는 (安養プール)이라는 한자와 가타가나가 새겨져 있다. 시민들은 대다수 못 알아차리고 있고 지역 시민의 제안으로 표지판에 안내를 해두었다. 삼성천의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풍부하여 당시 일제총독부는 이를 유원지로 활용하고자 했다. 1934년, 서울에서 출발하는 임시열차를 만들어 가정거장을 세워 여름철 향락객들을 안양천으로 보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서울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오전과 정오에 각각 1대씩으로 안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는 오후에 한 대가 있다. 서울에서 정오 전에 출발해 안양천에 가서 놀다 오라는 얘기다.

*1933년, 일제총독부는 안양천의 자연풀장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에 적극가담한 것은 일제강점기 서이면 면장 조한구다. 일인으로는 시흥군수 야마다였다. 위에 언급한 표지석은 석축으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머릿돌에는 “安養プール 昭和 七年 八月 竣工 松本 淡書”라고 새겨져 1932년 8월 안양풀이 소화 7년에 준공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일제는 당시 안양풀에 사용하기 위해 1938년 전등을 설치했고 그 해 7월 5일에 준공식을 열었다. 안양풀장은 한강도 놀기 좋은 곳이나 나무그늘이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일제 총독부는 서울과 가깝고 나무가 많은 안양천을 겨냥해 휴양시설을 만든 것이다. 안양풀은 개장 이후 일제에서 개인 뿐 아니라 학교 단위의 대규모 단체 훈련장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자료사진도 남아있다. 일제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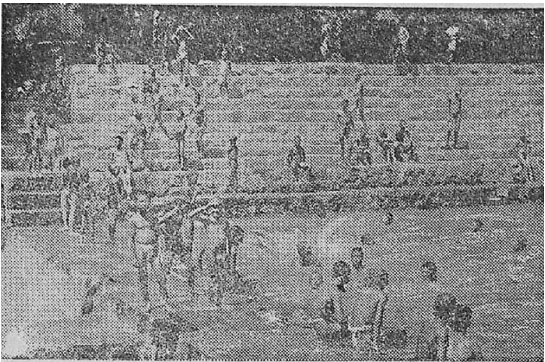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안양풀장에서 수영강습회를 열기도 했으며, 1943년 수영이 가능한 해군병을 모집하기 위해 수영강사를 양성했는데 안양풀에 강사양성훈련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외 안양천 주변의 수풀에서도 아동의 심신단련을 위해 임간학교를 설치해 단체 교육장으로 활용했다. 안양천은 일제강점기에 ‘사용하기 좋은’공간이었다.

연도	변화내용
1914	임시열차 운행 재개, 안양풀장 수리 후 재 개장
1949	수도권 각급학교 학생 단체 야영 재 시작, 임간학교 운영
1963	임간문고 설치
1967	풀장 3개소 설치, 이동진료소 및 이동우체국 설치
1977	안양대홍수로 시설 상당수 파괴됨
2000	안양 유원지 정식공사로 인해 안양풀장 흔적 소거

『광복 이후 안양 수영장의 여가 콘텐츠적 의미에 관한 고찰』(2014)
 중앙대학교 임석원, 수원여자대학교 박성수

안양천의 다른 지류인 수암천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이기도 했다. 일제는 현재 병목안시민공원의 병목안 부근 석산을 채석장으로 활용하며 돌을 캐날랐는데 무개화차는 수암천변에 설치되어 수암천을 따라 안양천으로 이어졌다. 1920년부터 병목안에 돌을 캐어 차량으로 운반했다. 1934년 소규모 철도를 깔고 캐낸 돌을 운반했고, 이 돌은 경부선 복선화 공사에 사용했다. 채석작업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1980년대까지 안양천 지류인 수암천을 따라 만든 철길을 이용해 운반했다.

일본 속옷 훈도시 차림의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 1942년 (매일신보)



병목안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수암천변 철길
 사진제공 : 이하나 (2013)



안양예술공원안양천의 석축
 사진제공 : 이하나 (2013)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58호 『일제강점기 안양풀(安養プール)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임석원 (2014)

해방이후부터 산업화시기

안양천과 시민생활

1960년대 수암천
사진제공 : 최병렬
안양시청 소장 재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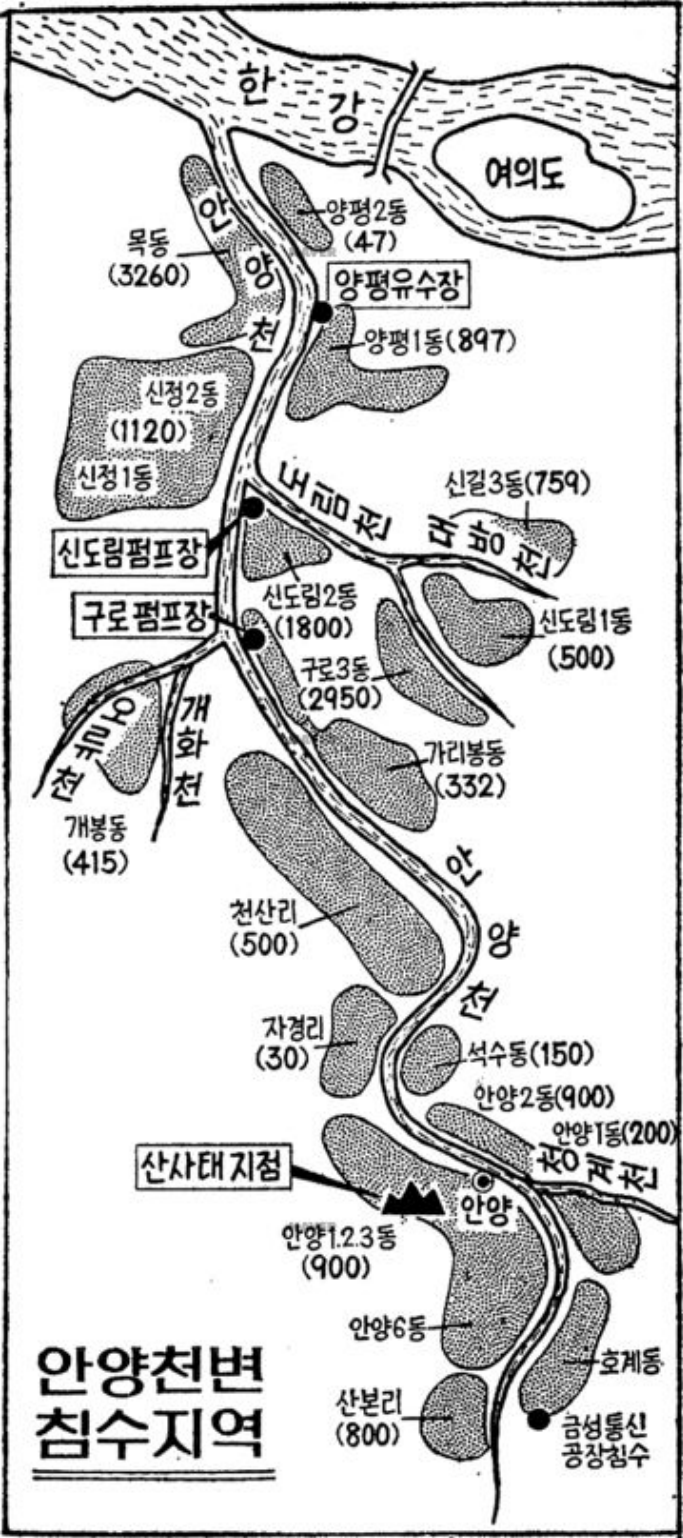
철길과 물길을 따라 수암천변에는 판잣집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수암천의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수암천은 인근 주민들의 빨래터이자 아이들의 물놀이 터이기도 했다.

1968년즈음 석수동 미군부대에 근무했던 닐 마샬로프의 사진으로 다수 남아있고 닐 마샬로프는 무상으로 안양시에 다량의 사진자료를 기증해 안양시의 중요한 사료로 자주 사용된다.



주한미군 닐 마샬로프의
안양풀장사진
사진제공 : 닐 마샬로프
안양시 기증(1968)

1977년 안양천은 20년만의 집중호우로 큰 위기를 겪는다. 안양시를 비롯한 안양천변의 여러 지역이 범람한 안양천을 감당하지 못해 수백명이 사망할 정도로 큰 참사가 이어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참사 발생 직후 안양을 방문해 수재민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라고 지시한다.



◀▲1977년 7월 9일 동아일보에 실린 홍수관련기사

77대홍수로 주저앉은 안양대교



安養一帯は修羅場
沙汰: 세곳 49명壓死
高壓線에 6명死亡

77대홍수 이후 70년대 후반은 정부가 안양천에 대한 각종 정비사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도 다리라고 하는 것은 고작 통나무다리를 열기설기 엮어

사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

도 안양천 곳곳에는 다리가 놓여있지 않아 임시적인 징검다리, 줄배 등을 이용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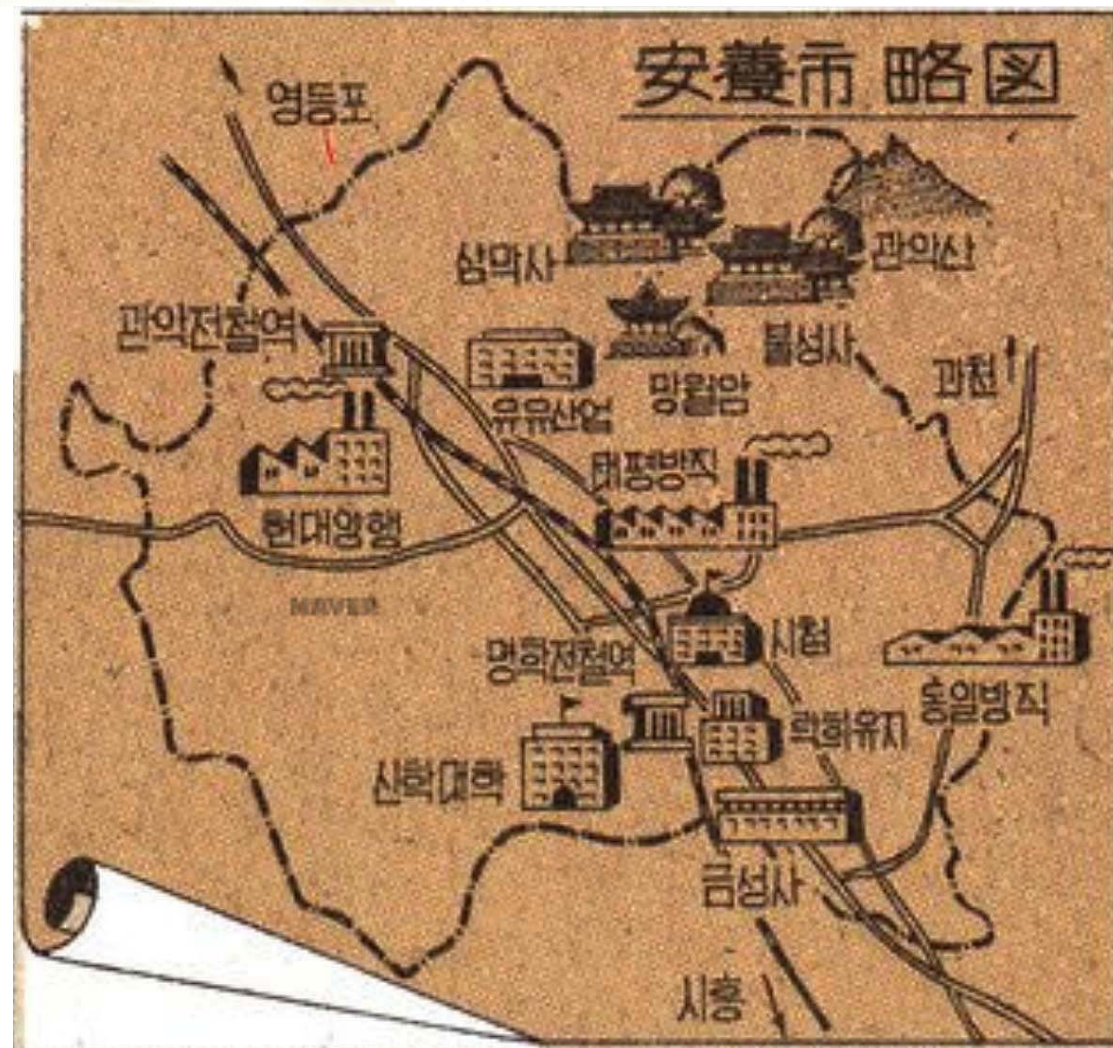
넌 것을 알 수 있다.

▶ 1983년 조선일보에 실린
광명 하안동의 안양천 다리

▼ 1971년 안양천 뱃놀이
사진제공: 고 김귀연
안양시청 소장



◇겉게 썩은 안양천에 하반신을 담근채 장마비로 끊긴 다리를 다시 세우고 있는 주민들.
67년 다리가 세워진 이래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일이다. <사진=眞滋虎기자>



1979년 경향신문
자료제공: 최병렬

최악의 한강지천

지역원로들에 따르면 1930년대 이후 안양천을 공업용수로 사용하려는 공장은

방직등 섬유공장과 제지회사들이었는데 이 두 업종이 안양천 오염의 주범인 셈이라

고 꼬집는다. 1975년 경향신문은 안양천변의 공장을 열거하며 안양천변의 오염도를

보도했다. 1979년 3월 14일자 경향신문 지령 10000호 특징 강산만리에 삽입된 지

도를 보면 안양천을 따라 금성사, 동일방직, 락희유지, 태평방직, 유류산업, 현대양행

이 줄 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현 삼덕공원자리에는 삼덕제지가 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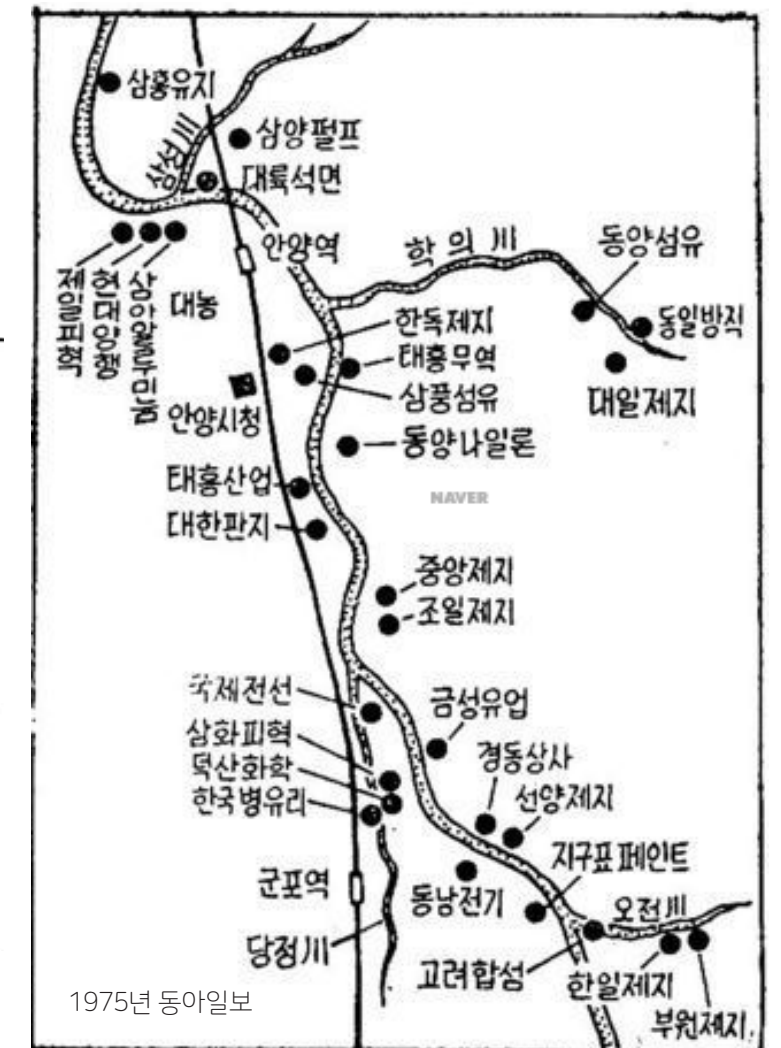
현 안양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자리에는 한국제지가 있었다.

【安養】안양천상류의 폐수
오염도가 높아져 이물로 농
사를 짓는 안양시석수동忠勤
府부락 4만여평에 달하는
논의비가 29일 현재 뿌리가 썩
고 잎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 마을 1백50여가구의 농
민들은 해마다 安養川물로
논을 사들 지어왔는데 오줌
은 농사를 지어왔는데 오줌
의 물이 부족한데다 상류
의 공장지대에서 흘러나온
다고 말했다.

【安養】안양천상류의 폐수
오염도가 높아져 이물로 농
사를 짓는 안양시석수동忠勤
府부락 4만여평에 달하는
논의비가 29일 현재 뿌리가 썩
고 잎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 마을 1백50여가구의 농
민들은 해마다 安養川물로
논을 사들 지어왔는데 오줌
은 농사를 지어왔는데 오줌
의 물이 부족한데다 상류
의 공장지대에서 흘러나온
다고 말했다.

【安養】안양천상류의 폐수
오염도가 높아져 이물로 농
사를 짓는 안양시석수동忠勤
府부락 4만여평에 달하는
논의비가 29일 현재 뿌리가 썩
고 잎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 마을 1백50여가구의 농
민들은 해마다 安養川물로
논을 사들 지어왔는데 오줌
은 농사를 지어왔는데 오줌
의 물이 부족한데다 상류
의 공장지대에서 흘러나온
다고 말했다.

1976년 6월 29일 경향신문



1975년 동아일보

▼1975년 6월 30일 동아일보
▼▼1978년 6월 29일 조선일보



1980년에 들어서며 한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며 도시정비를 본격화한다. 그 사이 수많은 철거민이 발생했고 안양천변의 판자촌도 강제철거되었다. 당시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서울시 정비를 우선으로 꼽아 “경기도내 업체들이 한강까지 오염시킨다”는 헤드라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울을 우선으로 여니고 피해자처럼 설정하며 경기지역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임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사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위성도시와 베드타운을 건설할 만큼 서울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다. 게다가 국제적 대형 스포츠행사가 서울에서 열릴 달아 열리는 것도 이러한 구조에 영향을 끼쳤다.

대형 국제행사를 맞아 서울시 정비에 박차를 가하던 정부는 안양천변을 정비하고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계획, 설치하기도 하여 86년과 88년의 스포츠행사를 치러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느슨해진 감시망탓인지 아니면 하천정비가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인지 다시 오염하천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87년 주택사업협회에서 택지난 해소를 위해 안양평촌 개발방안을 제시하자, 이 안건은 청와대로 넘어가서 89년 4월 노태우대통령이 1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다. 안양의 현 평촌지역(행정동명 부림, 달안, 부흥, 범계, 평안, 귀인, 신촌)을 중심으로 하는 1기 신도시 계획이 세워지며 안양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다.

92년 한겨레기사에 따르면 안양천은 여전히 한강지천 중 최고 오염도를 기록했다. 당시 안양천은 생물이 살 수 없는 하천이었다. 정부는 언론을 동원해 안양천을 되살려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안양천의 복원을 놓고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공적을 치하했고, 시민사회는 시민력이 안양천을 되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민참여와 도시확장기

민관협동의 안양천살리기운동

90년대 이후 안양의 주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안양천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
다. 안양YMCA에서 펴낸 안양천생태지도, 안양천보고서 등이 외부에 공개, 발표되었
고 안양천생태살리기에 뛰어든 교사모임도 주목을 받았다.

1997년 설립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1999년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맡으며 안양천의 환경감시와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주력했다. 안양시는 2001년 안양천살리기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민운동에 발을 맞췄다. 시민사회에서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과 안양YMCA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안양천과 지천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해오며 안양천을 주제로 한 시민주도적 활동을 이끌었다. 안양시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이들과 결합하며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이끌었다. 1999년 설립된 지방의제21(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안양에 협의체를 구성하며 바이오플리츠등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합류하게 된다.

시민사회에서 시작한 안양천살리기운동은 안양지역에 걸
출한 활동가를 배출했고 생태교육강사를 다수 양성해 곳곳으
로 생태운동과 교육이 뻗어나갔다.

생태계가 살면 동심도 살아난다

[illegible]

공단·도심 지나며 물속생물체 전멸

안양천

「셋강을 살립니다」 현장진단

인양천 수질·생태 지도

1 학의천 최상류엔 60여종 활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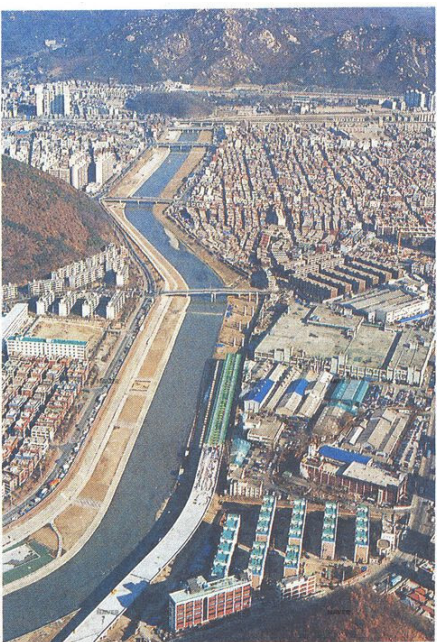
2 소나무 나뭇잎 7년부턴 줄어

3 붉은색 강물... 기형 미꾸라지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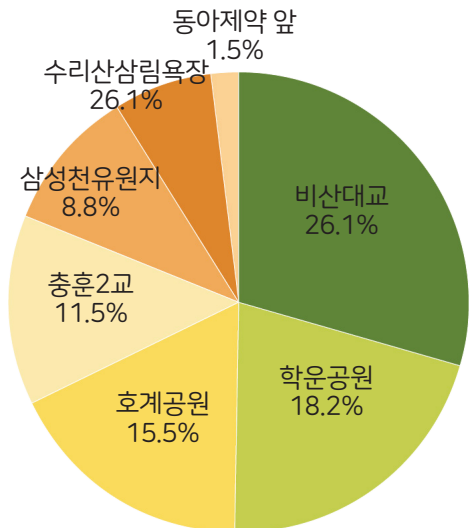
4 강변 시민들 포경... 자정기능 저하

5 물고기 전멸하고 설치물만 가득

6 고척교 아래 하류 하수구 점액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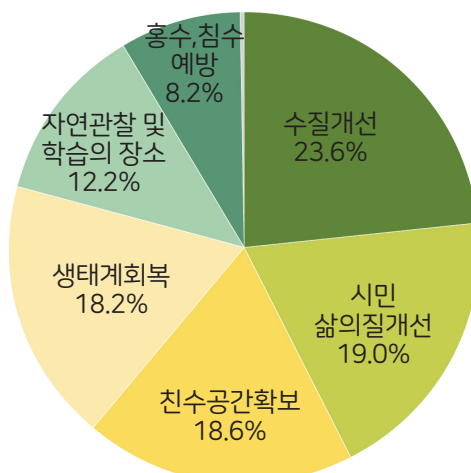


경기도 안양시 공장밀집지대 옆을 흐르고 있는 안양천 하류. 공장폐수와 가정하수로 검게 변한 안양천은 악취를 내뿜으며 한강으로 흘러든다. <본사 제비2호 기장에서 鄭良均기자·조흥 金眠壽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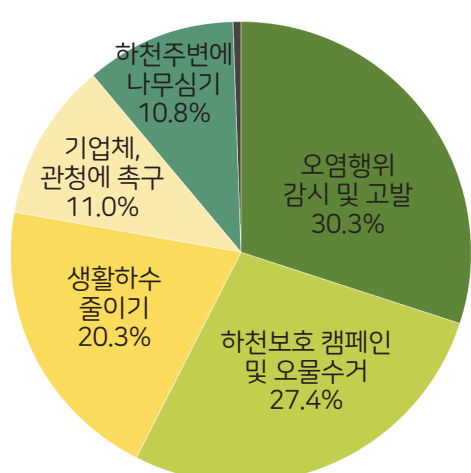
안양천살리기 시범구간 선정

- 1위 비산대교 상,하류 부근 26.1%
- 2위 학운공원 18.2%
- 3위 호계공원 15.5%
- 4위 충훈2교 11.5%
- 5위 삼성천 유원지 (현 안양예술공원) 8.8%
- 6위 수리산삼림욕장 (현 병목안시민공원) 6.3%
- 7위 동아제약앞 (현 석수2-3동) 1.5%



사업의 기대효과

- 1위 수질개선 23.6%
- 2위 안양시민의 삶의질 개선 19.0%
- 3위 친수공간 확보 18.6%
- 4위 생태계회복 18.2%
- 5위 자연관찰 및 학습의 장소 12.2%
- 6위 홍수, 침수 예방 8.2%
- 7위 기타 0.2%



시민참여 방안

- 1위 오염행위 감시 및 고발 30.3%
- 2위 하천보호 캠페인 및 오물수거 27.4%
- 3위 생활하수 줄이기 20.3%
- 4위 기업체, 관청에 촉구 11.0%
- 5위 하천주변에 나무심기 10.8%
- 6위 기타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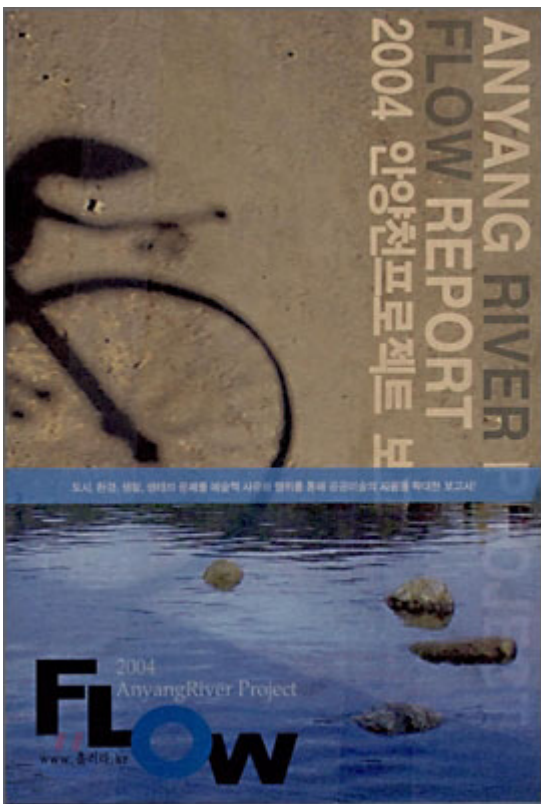
2001년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 용역보고서에 실린 시민설문조사

문화예술방면으로는 석수아트프로젝트를 주도한 스톤앤워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톤앤워터는 석수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집단으로 2002년부터 현재 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는 “안양천 프로젝트 FLOW”를 진행해 각계의 환영을 받았다. 한때 안양은 스톤앤워터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떠오르는 공공미술의 메카’라는 호칭까지 얻었다. Flower(생태미술), Land(대지미술), Object(무목적적 오브제), Wall(벽)을 화두로 현대 미술을 안양천에 녹여낸 FLOW 프로젝트는 생태학적 상상력과 지역에 기반한 공공미술을 표방하며 플럭서스(Fluxus)의 실험정신을 계승한다(안양천프로젝트운영위원회, 2005). *김학희는 논문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안양의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실증하는 안양천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안양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하천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이야기를 드러낼 뿐 아니라 장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체성을 제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양천변에 위치한 삼덕제지 폐공장을 거점으로 삼고 해외작가들을 초대해 지역중심의 새로운 공공예술의 장을 펼쳤다.

*지리학자가 된 예술가들 : 안양 FLOW 및 석수아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rtists Doing Geography : Focusing on Anyang FLOW & Seoksoo Art Project (2008) 김학희(경인교대 사회교육과)

안양천프로젝트 메인 이미지



안양천은 2003년부터 각종 표창을 받기 시작한다.

연도	수상내역
2003	세계 물의 날 행사 (전국의 모범사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
	제2회 강의 날 (대회 환경부장관 특별상)
	제4회 물사랑 실천 (대회 우수상)
	제4회 자치경영전국대회 (환경부문 최우수상)
2004	제12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맑은 물 대상)
	제3회 강의 날 (대회 환경부장관 특별상)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기관장상 우수도시(특별상) 수상)
2009	'SBS 물환경 대상' (대상 수상)
2014	2014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컨테스트 (복원성과 부문 우수상 수상)
2016	2016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컨테스트 (안양시 안양천 최우수상 수상)

2010년 이후, 안양천은 명실상부 성공한 생태하천 복원사례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안양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안양천의 과거 오염도를 상상하지 못한다. 오염에 대한 불명예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니 그간의 끈질긴 노력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안양천은 안양의 시작이며 현재다. 안양천을 즐기며 누리는 시민들의 애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안양천이 없는 안양은, 안양일 수 있을까?



안양천
요즈
어때요?
평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총평

- 초기에는 별 다른 문제 없이 진행
- 참가자 모두 모더레이터, 퍼실리테이션 기법에 즐거워하며 참여함
- 회차가 거듭될수록 명확한 목표를 향해 제안을 도출하는데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낌
-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 행정서비스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 자발적 참여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림
- 거대담론보다 생활밀착형 활동을 제시하도록 노력함
- 참가자들이 최대한 부담없이 나와 지적 유희를 즐길 수 있도록 독려함
- 부정적인 생각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으나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참가자의 힘으로 돌파함
- 시간점유, 특정주제 강조에 대해 참가자들이 협조하고 인내하여 순조롭게 진행됨
- 도출한 아이디어가 모방에 기인하는 경우 아이디어 초기의 원점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발견함

총평

총 7회에 걸친 안양천, 요즈 어때요가 마무리되었다.

모든 분들의 수고와 참여덕에 사업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자평한다.

기획자로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고른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을 설정했으나 기대만큼 젊은 층에 참여하긴 어려웠다. 6회 이상의 시민대상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마다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으로 모임을 만들곤 하지만 매번 실패다. 일단 절대적으로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었고, 장년층의 참여율이 가장 활발한 것 역시 인구구조상 당연한 결과지만 그래도 언제나 아쉽다. 30대는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율이 높고 50대 이상은 압도적으로 여성비율이 높다. 여타의 문화교양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다. 지역기획자로서 어떻게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인가는 늘 고민해야 하는 숙제다.

사업 시작 직전까지 장소섭외로 애를 먹었다. 안양의 특성상 무료로 사용가능한 대관시설은 늘 포화상태다. 오히려 교통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의 개인사업자의 업장을 임대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후회도 있다. 안양은 더 이상 공공의 영역에게 고르게 공간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제는 거주민 뿐 아니라 생활시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테이블마다 책임퍼실리테이션을 두고 프로젝트 내내 리드한 역할이 컸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참가자들 중 다수가 지역 내에서 이미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인재들이라 고르게 의견을 배치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전개하는 부분이 관건이었다. 매회 소감을 나누고 다음 회기를 준비하며 우리는 참가자의 개별적 특성과 삶에 대한 태도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순수한 마음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참가자들과 가까이 호흡하며 활동하게 된 건 행운이다.

언제부턴가 행정은 서비스로 치부되고 시민들은 세금을 내는 대신 그게 걸맞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서비스 역시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 서로 벽을 치고 요구만 전달할 경우 합의에 이르는 길을 점점 멀어진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이미 실행중인 것도 있고 실행되었다가 멈춘 것도 있다.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자발적인 시민의 힘으로 실행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지길 바란다.

지난 코로나팬데믹동안 많은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외로움을 견뎠다. 이제는 어디에선가 자주 만나 네트워킹의 연결성을 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대하는 시민들이 힘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



안왕천
요즈음
어때요?

참고문헌

논문

- 장소 특정적 (site-specific) 공공미술로서의 로커티브 미디어아트 연구 - 우숙영, 박승호 (2006)
- 지리학자가 된 예술가들 - 김학희 (2008)
- 광복 이후 안양 수영장의 여가 콘텐츠적 의미에 관한 고찰 - 임석원, 박성수 (2014)
- 일제강점기 안양풀에 관한 연구 - 임석원 (2014)
- 도시하천의 수변공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 안양천을 중심으로 - 구본영, 김진섭 (1996)
- 안양천의 생태학적 수질오염 실태 분석 - 이양규, 김갑진 (2000)
- 최근 안양천의 계절별 수질오염 분석 - 이양규, 한중근, 조원철, 홍창성 (2005)
- 안양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추정 : 개별여행비용법을 중심으로 - 이윤, 홍용석, 정영근 (2015)
- 도시하천 살리기 거버넌스의 특성비교 : 온천천과 양재천의 사례 - 이시경 (2013)
- 디자인씽킹 및 CPTED적용을 통한 안양천 공공디자인 개선 - 동의대학교 디자인공학부 (2020)
- 어메니티를 고려한 안양천의 수변공간 실태분석 - 안양교~충훈2교를 중심으로 - 임현서, 정윤희, 이유미 (2020)

보고서

- 2001년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용역보고서
- 2003년 경기도 안양천살리기 종합대책 요약보고서
- 2021년 안양박물관 학술조사 연구사업 - 삼성산을 중심으로 한 안양지역 불교유적 학술연구 보고서

도서

- FLOW : 2004 안양천프로젝트 보고서 - 아침미디어 (2006)
- 안양의 기틀을 다지다 : 안양사의 흔적 - 안양박물관 (2021)

사진자료

-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최병렬 (안양기억찾기탐사대장)
- 닐 마샬로프 개인사이트
- 안양시청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주최 문화공동체 **히음**

안양 문화도시 시범사업

안양천, 요즘 어때요? 라운드테이블 운영결과보고

활동기록 | 차윤주, 문명순, 강미자, 이하나

사진기록 | 박창훈

주집필 | 이하나

프로그램 운영 | 문화공동체 히음

편집·디자인 | 문화공동체 히음

펴낸날 | 2022. 12.

